



한·뉴질랜드 경제협력 방향과 통상전략

김한성 · 배희연

연구자료 07-06

한·뉴질랜드 경제협력 방향과 통상전략

김한성 · 배희연

연구자료 07-06

한·뉴질랜드 경제협 방향과 통상전략

인 쇄 2007년 12월 20일

발 행 2007년 12월 30일

발행인 이 경 태

발행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 화 02) 3460-1178, 1179

팩 스 02) 3460-1144

인 쇄 (주)현대애드컴: 02-2275-8125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 16-375호

©20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 가 7,000원

ISBN 978-89-322-2111-5 94320

978-89-322-2064-2(세트)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한·뉴질랜드 경험방향과 통상전략

김한성·배희연

남태평양에 위치한 뉴질랜드는 인구는 400만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6,000달러가 넘고 높은 기술력과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지닌 안정적인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세계 주요 교역지역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지적학적 요인과 4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인구로 인한 경제 규모의 한계로 인해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이나 진출국가로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2006년도 한국의 대뉴질랜드 수출은 6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0.4%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9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8.6%의 성장을 보였다. 뉴질랜드는 한국의 55번째 수출 대상국이며 32번째 수입 대상국으로 1990년 이래로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뉴질랜드가 한국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크지 않은 것과는 반대로, 한국은 뉴질랜드에게 호주, 미국, 일본, 중국, 영국에 이어 6위의 수출 대상국으로 2006년 전체 수출의 3.98%를 차지하였고, 수입에서는 총 수입의 2.92%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뉴질랜드 교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의 교역에서 뉴질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높은 비대칭적인 교역관계를 지니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뉴질랜드의 경제규모는 한국이 교역규모 확대를 통

한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높은 1인당 국민소득과 안정적이고 투명한 경제·사회구조를 지닌 선진국이라는 점은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400만에 불과한 뉴질랜드 인구는 뉴질랜드 시장규모를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경제적 이익이 통상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한국의 대뉴질랜드 통상전략은 뉴질랜드가 지니고 있는 비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이 대뉴질랜드 통상전략에서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뉴질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농업·임업·낙농업 부문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생각할 수 있다. 뉴질랜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농업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국가이다. 1980년대 경제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 오늘날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총생산 대비 생산자 지원 비율(PSE: Producer Subsidy Estimate)을 유지하면서도 국제 농산물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닌 국가로 발돋움 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뉴질랜드 농산물은 세계시장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주변 환경과 기술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뉴질랜드의 배경을 이용하여 한국은 한국 농업부문의 뉴질랜드 진출 및 농업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4월에 한국과 뉴질랜드는 한·뉴 농업협력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농업부문 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는 국내 농업 환경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함께 한국 개인 및 기업들의 직접 진출 확대는 식량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식량 자급률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뉴질랜드가 경제규모는 작지만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명성을 지닌 국가로 주 세력국가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원조와 발전, 군축, 환경과 같은 문제에서 미들파워(middle power) 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의 미들파워 외교는 단기적으로 주 세력국가

들과의 외교적 마찰과 반목을 불러와 외교 이외의 부문으로 영향이 미치기도 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뉴질랜드의 윤리 외교(moral diplomacy)가 국제적 지지를 받고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명성과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또한 뉴질랜드는 이러한 명성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미들과 위 협력(middle power alliance)을 구성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대양주에 위치한 다른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한국은 북한과의 대립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독자적으로 미들과 위 외교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은 뉴질랜드와 긴밀한 외교관계를 구축하여 뉴질랜드의 외교적 명성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적 방향을 지지하는 여론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미들과 위 협력 구성의 축으로 등장하기보다는 참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여론을 형성해가는 데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뉴질랜드 FTA도 ‘외교협력 강화’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뉴질랜드는 한국이 체결한 한·칠레 FTA로 인해 키워를 비롯한 일부 과실류의 한국 수출이 이미 줄어들고 있으며, 한·미 FTA 타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한국 시장에서 뉴질랜드산 쇠고기 판매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뉴질랜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캐나다 FTA와 한·EU FTA가 타결될 경우,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품목인 목재류와 낙농제품의 한국 시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국과의 FTA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뉴질랜드에 대해 "한국 시장에서 뉴질랜드산 제품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양자간 FTA 추진을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양국 외교관계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지정학적 핸디캡과 400만 명의 적은 인구, 그리고 한국의 주요 수출입 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는 한국에 대해 외형

적 규모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높은 1인당 국민소득과 농업, 생명공학, 영상 등 특정 부문에서의 세계적인 기술력, 그리고 서방세계와 남태평양제도 도서 국가들에 미치는 외교적 영향력은 한국이 뉴질랜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된다. 단기적인 수출 증가나 교역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대(對)뉴질랜드 접근 전략은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한국의 필요와 뉴질랜드의 비교우위가 교차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및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한다.

차례

국문요약	3
.....	
제1장. 서론	13
.....	
제2장 뉴질랜드 경제 동향 및 특징	17
.....	
1. 뉴질랜드 경제 개황	17
가. 경제정책	19
나. 대외교역관계	23
2. 뉴질랜드 거시경제 동향	29
가. 거시경제 동향	29
나. 산업구조	30
3. 대외관계	34
가. 호주	34
나. 미국	36
다. 일본	38
라. 중국	40
마. EU	41
4. 뉴질랜드 향후 경제전망	43
가. 단기 경제전망	43
나. 뉴질랜드 경제의 중장기적 위험요인	45

제3장 한·뉴질랜드 경제관계	52
-----------------	----

.....	
1. 교역관계	52
2. 투자관계	55
3. 한국과 뉴질랜드의 산업경쟁력 분석	59
가. 현시비교우위 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59
나.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	63
다. 수출경합도 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	69
라. 무역집중도 지수(TII: Trade Intensity Index)	70
마. 소결	72

제4장 한국의 대뉴질랜드 통상전략	74
--------------------	----

.....	
1. 한·뉴질랜드 FTA 추진	74
가. 중·뉴질랜드 FTA 추진 동향	75
나. 한·뉴질랜드 FTA 추진	81
2. 한·뉴질랜드 협력 강화	83
가. 농업부문 진출 및 기술협력	84
나. 외교적 협력 강화	87
다. 인적교류 확대	89

제5장 결 론	93
---------	----

.....	
참고문헌	139

.....	
Executive Summary	143

.....	
-------	--

표 차례

표 II-1. 뉴질랜드 정부 재정(2002~2006)	20
표 II-2. 뉴질랜드 2006년도 주요 수출입 품목(HS 2단위 기준)	24
표 II-3. 뉴질랜드의 지역별 상품 무역 수출입(2003~2006)	25
표 II-4. 2006년도 주요 국별 수출입	26
표 II-5. 뉴질랜드 서비스 교역 통계(2001~2006)	28
표 II-6. 농축산업 생산품목 및 비중	31
표 II-7. 뉴질랜드 제조업 부문별 생산	32
표 II-8. 2006년 호주의 대뉴질랜드 10대 교역품목(HS 2단위 기준)	35
표 II-9. 2006년 미국의 대뉴질랜드 10대 교역품목(HS 2단위 기준)	37
표 II-10. 2006년 일본의 대뉴질랜드 10대 교역품목(HS 2단위 기준)	39
표 II-11. 2006년 중국의 대뉴질랜드 10대 교역품목(HS 2단위 기준)	40
표 II-12. 2006년 EU-15의 대뉴질랜드 10대 교역품목(HS 2단위 기준)	42
표 II-13. 향후 경제전망	45
표 II-14. 뉴질랜드 경상수지	47
표 II-15. 뉴질랜드 대외부채	48
표 III-1. 한국·뉴질랜드 교역 현황	53
표 III-2. 한국의 대뉴질랜드 주요 수출품목	54
표 III-3. 한국의 대뉴질랜드 주요 수입품목	55

표 III-4. 한국의 대뉴질랜드 연도별 투자 추이	56
표 III-5. 한국의 대뉴질랜드 업종별 투자 구조	57
표 III-6. 뉴질랜드의 대(對)한국 연도별 투자 추이	58
표 III-7. 산업별/연도별 뉴질랜드 대(對)한국 투자	58
표 III-8. 한국과 뉴질랜드의 산업별 RCA 지수	61
표 III-9. 세부산업별 RCA 지수 분포 현황	62
표 III-10. RCA 지수 상위 15대 품목	63
표 III-11. 한국과 뉴질랜드의 산업별 대(對)세계 TSI 지수	65
표 III-12. 한국의 대뉴질랜드 TSI 지수	66
표 III-13. 세부산업별 TSI 지수 분포 현황	67
표 III-14. 농산물의 대뉴질랜드 TSI 지수	68
표 III-15. 한국 · 뉴질랜드 수출경합도	70
표 III-16. 한국과 뉴질랜드의 산업별 대(對)상대국 TII 지수	72
표 III-17. 한국과의 수출입 보완성 지수	73
표 IV-1. 중국 · 뉴질랜드 FTA 추진경과	76
표 IV-2. 뉴질랜드의 관세율 조정계획	79
표 IV-3. 평균관세율 추이	79
표 IV-4. 중국 · 뉴질랜드 FTA에 따른 한 · 중 품목간 관세격차	80
표 IV-5. 품목별 식량자급률 전망	85
표 VI-6. 뉴질랜드 인구센서스(인종별 인구 추이)	90
표 IV-7. 우리나라의 해외 유학생 국가별 비중	90
표 IV-8. 뉴질랜드의 학생 비자 발급 추이	91

그림 차례

그림 I-1. 주요 도시의 3시간 30분 비행거리 내 GDP 및 인구 비중	15
그림 II-1. 뉴질랜드 기준금리 변동 추이(1999. 4~2007. 11)	21
그림 II-2. 뉴질랜드 환율 변동 추이	22
그림 II-3. 뉴질랜드 경제성장률 추이	29
그림 II-4. 뉴질랜드 노동인구 유입 추이(1991~2006)	46
그림 II-5. 뉴질랜드 환율 동향	49
그림 II-6. 뉴질랜드 통화표시 해외채권 발행(Eurokiwi & Uridashi)	50

제1장

서론

뉴질랜드는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3위권 내에 드는 가장 풍요로운 국가 중의 하나로 20세기를 시작하였다. 영국의 영향을 받은 서구식 민주주의 전통과 발달된 사회·경제 제도를 바탕으로 뉴질랜드는 1950년대까지 안정적인 국가 모델로 평가되었으며, 견고한 농업 경제를 기반으로 하여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완전고용을 유지하면서 연평균 4%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이 시기에는 대내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부 개입 및 규제를 통한 자국 산업의 철저한 보호와 활발한 공기업의 경제 주도가 뉴질랜드 경제를 이끌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영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였다.

그 후 뉴질랜드는 영국의 EU 가입, 석유파동, 국제 농산물가격 폭락 등 일련의 외생적 충격을 겪으면서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1984년 노동당 집권과 함께 추진된 개혁·개방 정책은 이러한 위기를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뉴질랜드의 개혁·개방 정책은 이후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귀감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뉴질랜드 경제에 대한 연구보다는 ‘성공적인 개혁 사례’나 ‘작은 정부’와 같은 정치·행정학적 측면의 접근이 보

다 활발히 진행되었다.

세계 주요 경제권과 떨어져 있는, 대양주 남동쪽에 위치한 뉴질랜드의 지리적 열세는 뉴질랜드 경제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으며, 이러한 지리적 요인은 과학 기술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뉴질랜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주요 도시에서 3시간 30분 비행거리¹⁾ 이내 지역의 국민총생산(GDP) 및 인구를 살펴보면, 홍콩의 경우 3시간 30분 비행거리 내에 전 세계 GDP의 32%와 세계 인구의 42%가 위치하고 있다. 파리는 세계 GDP의 26%, 인구의 15%가, 미국 중서부 도시인 시카고는 전 세계 GDP의 25%와 인구의 7%가 3시간 30분 비행거리에 위치한다. 반면 뉴질랜드 제1의 도시인 오클랜드의 경우에는 전 세계 GDP의 1%,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0.4%만이 3시간 30분, 즉 1일 생활권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한계성은 뉴질랜드의 수출과 수입, 그리고 외국인투자와 같은 경제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크래프츠와 베나블레스(Crafts and Venables 2001)는 4,000km 거리 차이가 있는 국가 간 교역은 1,000km 거리 차이가 있는 국가 간 교역의 평균 18%에 불과하며, 거리 차이가 8,000km에 이르는 국가 간 교역의 경우에는 1,000km 거리인 국가 간 교역의 통상 7% 정도 수준이라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에서도, 국가 간 거리가 2,000km인 경우는 1,000km 거리인 국가들의 양자간 해외투자(FDI)의 약 75% 수준이며, 8,000km 거리인 국가 간의 양자간 해외투자는 1,000km 거리인 국가들의 약 42% 정도에 불과하다고 추정하였다.

1) 3시간 30분 비행거리는 1일 생활권으로 간주할 수 있는 최대 비행시간을 의미함.

■ 그림 1-1. 주요 도시의 3시간 30분 비행거리 내 GDP 및 인구 비중 ■



자료: David Skilling(2006), p. 6에서 인용.

뉴질랜드는 경제적으로 한국으로부터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앞에서 언급한 지리적인 한계와 4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인구는 뉴질랜드가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이나 진출국가로서 주목받지 못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2만 6,000달러를 상회하는 1인당 국민소득과 농업, 생명공학, 영상 등 특정 부문에서 보여준 높은 기술력, 그리고 서방세계와 남태평양제도 도서 국가들에 미치는 외교적 영향력은 한국이 뉴질랜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된다. 단기적인 수출 증가나 교역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대(對)뉴질랜드 접근 전략은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한국의 수요와 뉴질랜드의 비교우위가 교차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및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호 협력을 포함한 한국의 대뉴질랜드 통상전략을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뉴질랜드 경제의 동향과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뉴질랜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간략

히 기술하였으며, 제3장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교역 및 투자, 그리고 산업
별 경쟁력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양자간 FTA, 경제협력 방안 등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뉴질랜드 통상전략을 살펴보았고, 제5장은 연구
주요내용을 요약하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 있다.

제2장

뉴질랜드 경제 동향 및 특징

1. 뉴질랜드 경제 개황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1960년대까지 천혜의 자연환경과 서구식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국가모델로 평가받던 뉴질랜드는 1960년대 말부터 연쇄적인 경제적 충격을 맞이하게 된다. 영국의 유럽공동체(EEC) 가입은 당시 뉴질랜드 주요 수출품목인 농산물의 최대 수출시장 영국에서 뉴질랜드 상품의 경쟁력을 약화시켰고,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과 국제 양모가격의 폭락을 겪으면서 뉴질랜드 경제는 급격한 하향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는 높은 수준의 경제활동과 고용을 달성한다는 단기적 경제정책을 추구하면서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고, 외국 차관도입과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 그리고 높은 자국 산업 보호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하지만 보호는 또 다른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국내 산업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경쟁력과 급변하는 세계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갔다. 1979년과 1980년 야기된 또 한 차례의 석유파동과 국제 농산물가격 변동은 뉴질랜드

경제의 총체적 위기를 불러오게 되었다.

뉴질랜드의 경제적 위기는 위에서 언급한 외적 요인에서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단일한 경제운용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62년 뉴질랜드 경제·통화 위원회(Economic and Monetary council)는 1949~60년 기간의 뉴질랜드 생산성이 뉴질랜드와 유사한 경제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국가들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보고하면서, 뉴질랜드 정부에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하였다. 하지만 당시 세계 경제의 상위권에 위치하며 풍요로움을 누리던 뉴질랜드는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과 미래에 대한 준비에 집중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출 기회를 잃어버렸고, 이러한 실패는 심각한 경제위기라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

1984년 집권한 노동당 정권은 집권과 동시에 정치·경제 전반에 걸친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건실한 재정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변동환율제도의 도입, 금융시장의 규제 완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 및 철폐, 노동시장 규제 완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과 같이 시장 개방을 통해 국제시장의 시장 논리와 경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자국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꾀하였다. 1970년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관세장벽을 가지고 있던 뉴질랜드는 단기간에 폭넓게 이루어진 개혁의 결과로 오늘날 선진국 중 가장 자유화된 국가로 변모하였다.

뉴질랜드의 개혁정책은 보호를 통한 자국 산업 육성에서 시장 기능을 통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의미하며, 비록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기는 하였으나 적극적인 개혁 조치들을 실행하면서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70~83년 기간 평균 2%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뉴질랜드는 개혁 초기인 1984~91년까지도 연평균 1.7%의 여전히 낮은 경제성장을 보였으나, 1992~2005년에는 평균 3%

의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회복하였다. 1997/98년 아시안 국가들의 통화위기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 생산 감소는 뉴질랜드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세계경제 불황이 심화된 2001년에도 성장률이 약 2%로 일시적으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2002년 이라크 전쟁, SARS, 가뭄에 따른 수력발전 및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다시 4.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 경제정책

1) 재정정책

1994년 제정된 Fiscal Responsibility Act는 뉴질랜드 정부가 추구해야 할 재정정책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동 법안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는 공공부채를 신중한(prudent) 수준으로 줄이고 유지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흑자 정부재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 재정위기 가능성에 대한 위기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성적으로 예측 가능한 조세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 법안은 1980년대 뉴질랜드 정부가 겪은 심각한 재정위기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되며, 국가 재정을 향상시키는 데 효율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개혁정책 추진 직전인 1980~84년에는 정부 재정 적자가 GDP 대비 평균 4.2%에 이르렀으나, 동 법안이 발효된 첫 해인 1993/94 회계연도부터는 흑자 재정을 기록하였으며, 1995/96년에는 GDP 대비 3.6%의 재정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후 다소 약화된 경제 상황과 정부소유 기업의 민영화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0년대 들어 다시 흑자 재정을 기록하였고 2005/06 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7.3%에 이르는 흑자를 기록하였다.

현재 뉴질랜드는 OECD 국가 중 가장 건실한 정부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공공부문 부채를 줄이기 위해 재정 흑자를 이용하던 1990년대와 달리 현재는 정부 재정 흑자가 향후 고령화 사회 진입을 대비한 뉴질랜드 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이나 교육, 의료 및 사회간접자본을 위한 정부 투자 프로그램의 자본으로 이용되고 있다.

■ 표 II-1. 뉴질랜드 정부 재정(2002~2006) ■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수입	조세수입	36,215	39,785	42,532	46,624	51,973
	기타 재정수입	13,764	17,242	17,855	20,441	24,608
	총수입	49,979	57,027	60,387	67,065	76,581
지출	사회보장 지출	13,485	13,907	14,252	14,682	15,598
	정부 연금 펀드 지출	1,409	2,625	660	2,442	1,671
	의료	7,032	7,501	8,111	8,813	9,547
	교육	6,473	7,016	7,585	7,930	9,914
	정부 서비스	1,540	1,780	1,741	2,217	2,169
	기타	5,838	6,442	7,000	7,911	8,350
	재정비용	2,118	2,360	2,252	2,274	2,356
	순환율 손실	75	118	7	-35	295
	총지출	47,653	55,224	53,057	60,910	65,084
재정수지		2,391	1,966	7,424	6,247	11,473
GDP 대비 흑자폭(%)		1.9	1.5	5.3	4.2	7.3

자료: 뉴질랜드 재무부(New Zealand Treasu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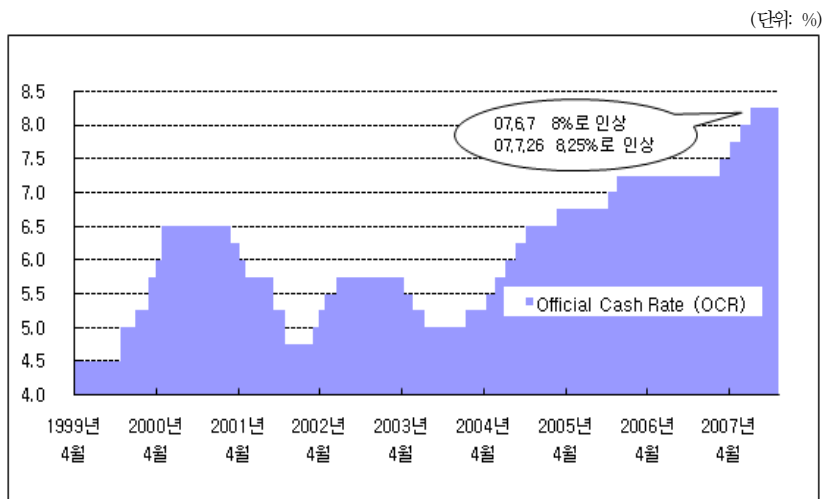
2) 금융정책

뉴질랜드의 금융정책은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 Reserve Bank of New Zealand)이 담당하고 있다. 독립기관인 RBNZ는 1989년 제정된 중앙은행법(Reserve Bank Act 1989)에 명시된 대로 ‘가격안정’을 뉴질랜드 경제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구하고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서로 협의하여 인플레이션의 목표치를 설정하며, 중앙은행은 이 목표치 내에서 경제가 운영되

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의 목표치는 2002년 정부와 중앙은행이 발표한 1~3%이며 이는 이전의 0~3%에서 상향 조정된 수치이다.

인플레이션을 목표치 내에서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OCR: Official Cash Rate)를 주요 정책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매 6주마다 기준금리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2007년 6월과 7월 연속 0.25%의 이자율 상향 조정으로 현재 뉴질랜드 기준금리는 8.25%를 기록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다.

■ 그림 II-1. 뉴질랜드 기준금리 변동 추이(1999. 4~2007. 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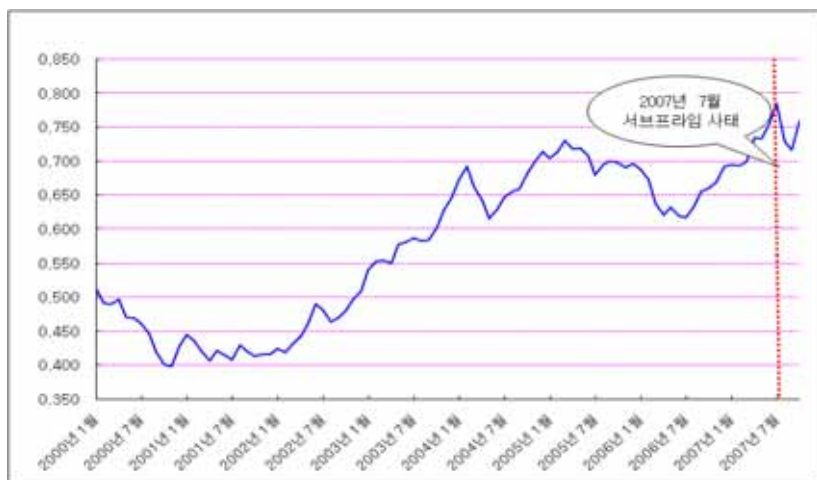


자료: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 Reserve Bank of New Zealand).

한편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들은 "지나치게 인플레이션 조절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특히 현재 낮은 생산성과 투자, 그리고 미국 달러에 대한 뉴질랜드 달러의 평가절상으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이자율은 국내 투자를 악화시키고 일본 엔캐리 자금의 유입을 촉발함으로써 환율을 악화시켜 뉴질랜드 교역수지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환율의 경우, 2004년 뉴질랜드 정부는 뉴질랜드 통화가 예외적으로 높거나 낮을 경우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중앙은행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이후 볼라드(Bollard) 뉴질랜드 중앙은행장은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필요한 경우 임시조치로 이용될 수 있으나 극히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뉴질랜드 달러의 계속되는 평가절상에도 불구하고 시장개입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2007년 6월 11일, 1985년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한 지 22년 만에 처음으로 전격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하였다. 또한 2007년 7월 발생한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는 뉴질랜드 달러의 금융경색 위협을 불러왔으나 이후 다소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그림 11-2. 뉴질랜드 환율 변동 추이 ■



자료: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

나. 대외교역관계

1) 상품교역

지리적으로 세계 주요 교역국 및 지역과 떨어져 있는 뉴질랜드에게 교역은 뉴질랜드 경제 발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소고기, 양고기 등 축산물과 농산물 및 낙농제품 등 1차 상품을 수출하고 제조업 제품을 수입하는 교역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 들어 수출상품 다변화 노력을 통해 많은 새로운 상품을 수출하고 있으나, 2005/06년 뉴질랜드 총 수출의 36.2%가 낙농, 육류 및 양모제품이 차지할 만큼 여전히 1차 상품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고, 따라서 이러한 1차 상품들의 국제 가격 변동은 뉴질랜드 수출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수입은 연료, 기계 및 자동차가 2006년도 상위 3개 품목으로 분류되며 총 수입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기기기, 플라스틱, 종이, 의약품, 철강 등 제조업 상품이 주요 수입품목이 되고 있다.

이처럼 1차 상품을 주로 수출하고 제조업 제품을 수입하는 교역구조는 뉴질랜드의 지리적 특성 및 자연 자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리적으로 세계 주요 교역시장에서 동떨어져 400만 명이라는 많지 않은 인구를 가진 뉴질랜드에서, 제조업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제조업 부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으나, 연중 온화한 날씨와 풍부한 강우는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교역구조는 뉴질랜드 경제의 유연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최근 들어 뉴질랜드 정부는 1차 상품을 직접 수출하지 않고 뉴질랜드 내에서 가공하여 수출함으로써, 1차 산업 관련 제조업을 육성하고 수출 상품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2006년 뉴질랜드의 총 수출은 327억 뉴질랜드달러로 전년 대비 약 11%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전년보다 9.4% 늘어난 408억 뉴질랜드달러를 기록하

였다. 낙농제품은 2006년에 총 62억 6,000만 뉴질랜드달러를 수출하여 전체 수출의 19.1%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육류(46억 7,000만 뉴질랜드달러, 14.27%)와 목재류(19억 1,000만 뉴질랜드달러, 6.5%)를 주로 수출하고 있다.

■ 표 II-2. 뉴질랜드 2006년도 주요 수출입 품목(HS 2단위 기준) ■

(단위: 백만 뉴질랜드달러, %)

순위	수 출			수 입		
	HS	품 목	수출액 (비중)	HS	품 목	수입액(비중)
1	04	유제품	6,255.6 (19.11)	27	광물 연료	6,059.2 (14.86)
2	02	고기류	4,668.7 (14.27)	84	기계류	5,152.0 (12.64)
3	44	지방, 기름	2,132.2 (6.52)	87	운송기관	4,771.8 (11.70)
4	84	기계류	1,578.9 (4.82)	85	전자 기계	3,558.5 (8.73)
5	76	알루미늄	1,479.8 (4.52)	88	항공기	1,713.4 (4.20)
6	08	과일	1,200.5 (3.67)	39	플라스틱	1,536.3 (3.77)
7	03	생선	1,194.0 (3.65)	90	사진	1,216.7 (2.98)
8	98	뉴질랜드 misc.	1,137.7 (3.48)	48	종이	994.9 (2.44)
9	85	전자 기계	967.7 (2.96)	30	계약	957.0 (2.35)
10	35	전분	934.8 (2.86)	73	철강 제품	737.9 (1.81)
11	51	양모	842.8 (2.58)	72	철, 강철	636.7 (1.56)
12	22	음료, 술	753.9 (2.30)	94	가구	593.3 (1.46)
13	21	Misc. 채소 조정 식품	673.3 (2.06)	28	무기화학품	568.4 (1.39)
14	47	펄프	624.6 (1.91)	61	편물 의류	532.5 (1.31)
15	19	곡류 조정 식품	558.0 (1.70)	62	기타 의류	515.2 (1.26)
16	27	광물 연료	550.3 (1.68)	38	화학 제품	467.7 (1.15)
17	72	철, 강철	523.3 (1.60)	40	고무	465.3 (1.14)
18	48	종이	474.4 (1.45)	21	Misc. 채소 조정 식품	451.9 (1.11)
19	41	가죽	462.4 (1.41)	49	책	422.6 (1.04)
20	39	플라스틱	429.4 (1.31)	22	음료, 알콜	417.8 (1.02)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주요 수출지역을 살펴보면, APEC 경제권에 수출되는 상품 총액은 2006년 총 228억 뉴질랜드달러로 전체 수출의 70%에 달하며, EU에는 약 51억 달러가 수출되어 전체 수출의 약 15%를 차지하였다.²⁾ 주요 수출지역은 전통적으로 유럽국가 특히 영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1966년 총 수출

의 2/3 이상이 영국으로 수출되었고, 육류와 낙농제품 수출의 90% 이상이 영국으로 수출될 정도로 영국이 뉴질랜드 최대의 수출시장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및 ASEAN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APEC 경제권에서의 수입도 총 수입의 약 76%를 차지할 만큼, 뉴질랜드의 태평양 경제권에 대한 의존도는 크게 증가하였다.

■ 표 II-3. 뉴질랜드의 지역별 상품 무역 수출입(2003~2006) ■

(단위: 천 뉴질랜드달러)

국가 구분	수 출				수 입			
	2003	2004	2005	2006(P)	2003	2004	2005	2006(P)
AFTA	2,178,735	2,258,990	2,302,692	2,707,435	2,693,153	3,378,421	4,085,666	5,564,013
APEC	19,583,243	21,126,915	20,835,504	22,813,668	22,859,328	25,308,740	26,976,768	30,586,036
아프리카	222,206	288,938	334,865	500,723	322,721	319,896	443,464	229,734
미국	5,530,167	5,785,511	5,785,505	6,106,281	4,644,897	4,924,768	4,963,477	6,064,985
캐리비안	200,604	220,595	231,836	266,018	32,417	29,890	42,665	38,485
중남미	363,736	342,616	378,178	465,583	225,571	251,083	258,231	260,473
북미	4,965,827	5,222,300	5,175,491	5,374,680	4,386,909	4,643,796	4,662,581	5,766,026
아시아	9,197,912	10,206,455	9,957,666	11,406,964	11,237,011	12,926,050	14,675,160	16,720,993
북아시아	6,638,721	7,511,120	7,155,411	8,021,532	8,263,475	9,250,506	10,214,696	10,803,755
남아시아	380,377	436,330	4,699,502	677,858	280,198	297,060	318,271	352,952
동남아시아	2,178,814	2,259,006	2,302,752	2,707,573	2,693,338	3,378,485	4,142,193	5,564,287
호주	5,552,706	5,882,329	5,909,395	6,373,404	7,174,660	7,812,088	7,682,142	8,196,398
태평양	829,084	950,315	952,088	1,009,288	161,166	103,865	157,255	035,467
EU-25	4,562,873	4,822,788	4,742,542	5,083,734	6,242,026	6,916,484	6,976,854	6,688,599
기타 유럽국가들	214,843	247,687	317,828	369,089	416,790	301,137	376,896	326,170
CEEC, NIS								
중동	956,856	1,044,813	1,185,981	1,554,888	1,450,631	1,495,252	1,844,877	2,270,052
기타	239,930	280,309	285,861	323,061	131,795	115,928	155,646	141,777
총합	27,306,577	29,509,145	29,471,732	32,727,432	31,781,697	34,915,468	37,278,770	40,774,174

P: 12월 이전 시점의 잠정적 수치임.

자료: Statistics New Zealand, Overseas trade.

국가별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뉴질랜드와 근접해 있는 호주가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국으로 2006년 총 64억 뉴질랜드달러를 수출하였으며,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뉴질랜드에서 총 13억 뉴질랜드

2) EU 25개국 기준. (표 II-2) 참고.

드달러를 수입하여 뉴질랜드의 제6위 수출 대상국이 되고 있으며, EU 국가 중에는 영국과 독일이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 되고 있다. 수입의 경우 호주에서 약 82억 뉴질랜드달러를 수입하여, 뉴질랜드 전체 수입액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뉴질랜드 최대 수입국이 되고 있다. 뒤를 이어 중국이 미국을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고 뉴질랜드 제2의 수입국으로 나타났으며, 미국과 일본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뉴질랜드의 국별 수출입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로 중국의 부상을 들 수 있다. 1960년대까지는 영국을 중심으로 하여 유럽 지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았으나, 이후 점차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옮겨갔다가 2000년대 들어 중국이 뉴질랜드의 주요 교역국으로 급부상하였다.

■ 표 II-4. 2006년도 주요 국별 수출입 ■

(단위: 천 뉴질랜드달러)

순위	국 가	수 출	%	수입(CIF)	%	무역수지
	합 계	32,727,432	100.00	40,774,174	100.00	-8,046,742
1	호주	6,373,404	19.47	8,196,372	20.10	-1822,968
2	미국	4,411,625	13.48	4,935,708	12.10	-524,083
3	일본	3,537,892	10.81	3,713,830	9.11	-175,938
4	중국	1,866,672	5.70	4,965,541	12.18	-3,098,869
5	영국	1,480,536	4.52	1,112,976	2.73	367,560
6	대한민국	1,303,824	3.98	1,192,563	2.92	111,261
7	독일	799,067	2.44	1,801,312	4.42	-1,002,244
8	대만	762,023	2.33	725,986	1.79	33,037
9	인도네시아	605,869	1.85	737,151	1.81	-131,281
10	벨기에	557,646	1.70	295,228	0.72	262,418
11	홍콩	545,065	1.67	196,552	0.48	348,512
12	캐나다	540,354	1.65	691,978	1.70	-151,624
13	이탈리아	510,635	1.56	832,262	2.04	-324,628
14	필리핀	508,377	1.55	146,389	0.36	361,988
15	말레이시아	487,032	1.49	1,195,716	5.93	-708,685
16	태국	431,951	1.32	1,030,863	2.53	-598,912
17	네덜란드	424,812	1.30	297,138	0.73	127,673
18	멕시코	422,701	1.29	138,339	0.34	284,363
19	싱가포르	421,223	1.29	1,873,616	4.60	-1,452,393
20	사우디아라비아	410,532	1.25	523,389	1.28	-112,857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뉴질랜드 교역통계(New Zealand External Trade Statistics).

상품교역에서 뉴질랜드는 2003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1/02년 23억 3,000만 뉴질랜드달러의 무역 흑자는 2002/03년 6억 7,000만 뉴질랜드 달러로 급격히 줄었고, 2003/04년에는 11억 9,000만 뉴질랜드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2004/05년과 2005/06년에도 각각 22억 5,000만 뉴질랜드 달러와 42억 5,000만 뉴질랜드달러의 상품무역 적자를 기록하여, 상품교역의 적자폭이 지난 몇년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³⁾ 이처럼 상품교역에서 적자를 기록하는 데에는 수입에 대한 수요가 수출 증가를 상회하는 데 원인이 있다. 뉴질랜드 달러화의 강세에 따라 수입 상품에 대한 상대가격이 인하되고 부동산시장의 활황으로 국내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수입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데 반해, 수출에서는 환율 및 유류 가격 인상으로 인해 국제 시장에서 뉴질랜드 상품의 경쟁력이 감소되어 수출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 서비스 교역

상품교역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과는 달리 서비스 교역에서 뉴질랜드는 지난 몇년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자원과 청정지역이라는 지리적 조건은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뉴질랜드를 찾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으며, 관광산업은 뉴질랜드 주요 서비스 수출산업이 되었다.

하지만 2001년 이후 증가하던 관광 수입은 2004년 최고점에 이른 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서비스 교역 흑자폭도 2003년 이후 점차 줄어들어 2006년에는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처럼 서비스 교역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게 된 데에는 뉴질랜드 환율 절상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달러의 강세는 뉴질랜드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을 다른 국가로 돌리게 하였고, 뉴질랜드 유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3) 뉴질랜드 통계청 자료, 해당 연도의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임.

2006년도 서비스 수출입을 비교해 보면, 서비스 수출의 경우 여행과 교통 서비스가 전체 서비스 수출의 80%에 육박하고 있으며, 수입의 경우 교통서비스, 여행, 그리고 저작권 사용료와 면허세의 순으로 수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표 II-5. 뉴질랜드 서비스 교역 통계(2001~2006) ■

(단위: 천 뉴질랜드달러)

서비스 수출	매년 9월 기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교통	2,849,057	2,452,866	2,425,755	2,248,851	2,296,508	2,429,283
여행	5,432,059	6,368,827	6,903,133	7,114,435	7,025,169	6,913,418
통신	498,744	501,918	380,669	335,406	403,656	231,858
건설	32,736	40,480	64,700	58,453	88,744	35,391
보험	32,009	36,403	42,606	41,063	40,642	41,443
금융	52,517	44,301	51,587	77,005	126,606	117,724
컴퓨터, 정보	217,165	245,805	230,143	238,276	278,684	278,246
저작권 사용료, 면허세	147,871	149,377	185,637	166,577	135,284	176,929
기타 사업 서비스	991,701	955,398	939,244	982,603	1,090,227	1,275,039
서비스 수출액 총합	10,670,180	11,200,977	11,622,046	11,710,832	11,878,695	11,868,254
서비스 수입						
교통	3,420,640	3,529,221	3,462,060	3,696,103	3,993,918	3,934,228
여행	3,104,939	2,944,644	2,773,318	3,241,565	3,691,791	3,884,564
통신 ^①	495,290	455,449	365,903	333,104	421,898	326,466
건설	10,550	13,339	13,171	12,182	41,874	41,988
보험	221,248	288,682	309,701	314,294	340,765	345,252
금융	90,921	83,226	134,349	102,159	200,908	113,443
컴퓨터, 정보	253,001	264,425	224,684	275,937	338,833	423,173
저작권 사용료, 면허세	754,818	788,053	804,172	722,842	788,989	776,697
기타 사업 서비스	1,843,012	1,647,295	1,550,728	1,580,013	1,571,612	1,895,163
서비스 수입액 총합^②	10,422,588	10,289,512	9,927,711	10,575,376	11,598,465	11,951,4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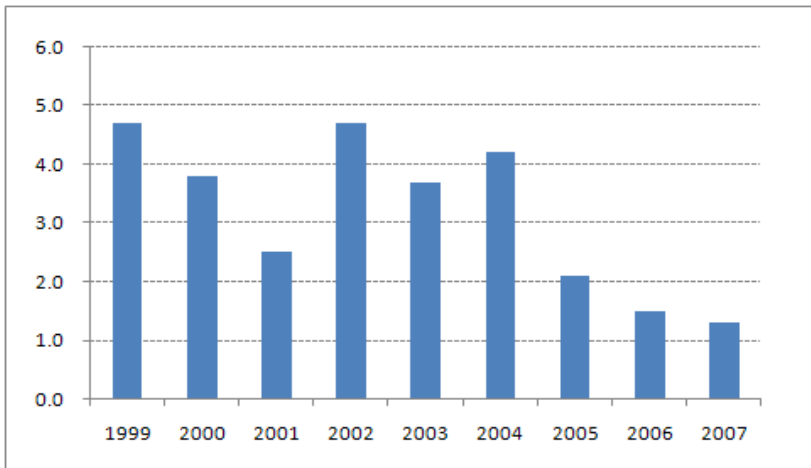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뉴질랜드 교역통계(New Zealand External Trade Statistics).

2. 뉴질랜드 거시경제 동향

가. 거시경제 동향

1994~2004년 기간 연 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뉴질랜드 경제는 2005년 2% 성장에 그쳤고 2006년에는 전년보다 낮은 1.6%를 기록하였다.⁴⁾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된 안정적인 경제성장은 노동인구 유입에 따른 생산증가에 기인하였으나, 이러한 성장 원동력이 한계점에 다다르면서 뉴질랜드 경제는 2005년과 2006년 낮은 성장을 기록하게 되었다.

■ 그림 II-3. 뉴질랜드 경제성장률 추이 ■



주: 2007년은 추정치임.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4)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예상치.

나. 산업구조

1) 1차 산업

농축수산업과 광업을 포함하는 1차 산업은 뉴질랜드 경제의 수출과 고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차 산업은 국민총생산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으나, 뉴질랜드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에 이른다.

농축산업 부문은 2005년도 GDP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가공산업은 GDP의 약 2.1%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농축산업 생산활동과 관련한 운송, 금융, 유통, 판매 등 농업 관련 서비스업을 함께 고려했을 때, 뉴질랜드 GDP에서 농축산업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GDP의 15%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요 농축산 품목은 낙농제품으로, 2005년도 총 생산이 54억 7,000만 뉴질랜드달러로 2004년에 비해 다소 줄기는 하였으나, 총 농산물 생산의 32.6%를 차지하면서 여전히 뉴질랜드의 가장 중요한 농축산 품목이 되고 있다. 그 밖에 과일과 소고기, 양고기 등이 주요 생산품목으로, 특히 과실류의 경우 키위와 사과가 주요 소득작물이 되고 있다.

산림작물이 2005년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로 상업적으로 재배된 산림의 68% 이상이 통나무, 우드칩, 펄프, 종이 혹은 기구로 가공되어 수출되고 있다. 2005년 산림작물은 28억 5,000만 뉴질랜드달러가 수출되어 총 수출의 약 9.3%를 차지하였으며, 주로 일본, 호주, 한국, 미국 및 중국으로 수출되었다.⁵⁾ 2005년에는 1,930만 입방미터의 원목이 생산되었으며 2010년이 되면 2,800만 입방미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뉴질랜드는 석탄, 금, 은, 철광석과 같은 천연자원과 천연가스, 석유 같은 에너지 자원이 생산되고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타라나키 해분의 11개 광구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현재 생산 중인 광구의 경우 2005년 추정치로 약

5) 2005년 9월 회계연도 기준. 뉴질랜드 재무부 발표(www.treasury.govt.nz).

3,958만 배럴의 원유와 8,692억 입방피트의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개발되지 않은 보유량도 원유의 경우 1억 3,970만 배럴과 가스의 경우 1조 1,140억 입방피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표 II-6. 농축산업 생산품목 및 비중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5년도 비중(%)
	단위: 백만 뉴질랜드달러					
유제품	5,028	6,182	4,710	5,700	5,470	32.6%
양고기	1,759	1,940	2,030	1,760	1,850	11.0%
소	1,834	2,139	2,080	1,950	1,970	11.7%
농업 서비스	1,712	2,043	2,210	2,240	2,360	14.0%
과일류	1,091	1,193	1,350	1,380	1,440	8.6%
살아있는 동물 판매	1,149	1,349	791	708	778	4.6%
채소류	648	712	810	903	831	4.9%
양모	693	664	707	676	521	3.1%
곡식과 씨앗	335	423	495	430	410	2.4%
원에	281	287	326	263	292	1.7%
비 농가소득	194	214	193	232	241	1.4%
다른 농업 분야	198	177	148	182	185	1.1%
돼지	147	167	162	128	152	0.9%
사슴	206	205	168	177	191	1.1%
가금류	95	116	121	128	125	0.7%
가축류 변화의 가치	365	287	52	-11	-1	0.0%
총 계	15,735	18,098	16,300	16,800	16,800	100%
중간 소비액 차감	-7,670	8,424	-8,510	-8,720	-8,830	
GDP에 대한 농업 기여 정도	8,065	9,674	7,840	8,110	7,990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뉴질랜드 교역통계(New Zealand External Trade Statistics).

뉴질랜드의 가장 풍부한 에너지 자원으로 알려진 석탄은 약 150억 톤이 매장되어 있으며, 약 86억 톤 가량이 채굴 경제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석탄은 산업용 연료로 이용 가능한 낮은 등급의 갈탄(lignite)으로, 철강산업이나 전력 생산용으로 이용 가능한 중급 역청질(sub-bituminous)의 석탄과 저황 점결탄(low sulphur coking coal)과 같은 고등급 석탄은 각각 총 석탄 생산의 15%와 5% 내외로 낮은 수준이다.

2) 제조업

뉴질랜드 제조업은 2005년 기준으로 뉴질랜드 GDP의 14.9% 그리고 총 고용의 13.8%를 차지하고 있다. 뉴질랜드 경제구조적 특성상 제조업은 식품 가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있으며, 뉴질랜드 1차 산업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는 뉴질랜드 제조업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

2005년도 뉴질랜드 제조업을 종목별로 분류해 보면, 축산물과 낙농제품 그리고 기타 식품과 관련한 제조업의 비중이 거의 50%에 달하고 있으며, 석유, 가스, 목재 등 기타 1차 상품들을 고려했을 때 그 비중은 전체 제조업의 70%를 넘어서고 있다.

이처럼 뉴질랜드 제조업은 자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1차 상품의 가공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제조업 부문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고 주로 수출보다는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표 II-7. 뉴질랜드 제조업 부문별 생산 ■

산업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5년도 비중(%)
	단위 : 백만 뉴질랜드달러					
식품류						
육류, 유제품	16,588	17,567	15,993	17,050	17,029	24.4%
기타 식품,음료,담배	9,191	9,452	9,836	10,030	9,997	14.3%
석유, 석탄, 화학제품	7,071	7,101	7,332	7,506	7,969	11.4%
금속제품	5,718	6,049	6,360	7,008	7,318	10.5%
나무, 종이제품	6,643	6,882	6,921	7,340	7,136	10.2%
기계, 장비류	5,938	5,763	5,926	6,506	6,732	9.6%
인쇄, 출판과 기록 매체	3,698	3,470	3,401	3,596	3,442	5.4%
섬유 의류	2,927	2,969	3,029	2,815	2,743	3.9%
비금속 광물제품	1,699	1,890	2,124	2,303	2,571	3.7%
운송장비	1,902	2,201	2,322	2,329	2,420	3.5%
가구류와 다른 제조업	1,691	1,943	1,977	2,036	2,11	3.0%
합 계	63,067	65,287	65,220	68,520	69,799	100.0%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뉴질랜드 교역통계(New Zealand External Trade Statistics).

3) 서비스업

뉴질랜드 경제에서 서비스업은 GDP의 약 2/3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1990년대 다소 침체된 양상을 보이던 서비스산업은 2000년대 들어 급속한 성장세를 보여, 2002년에서 2005년의 4년간 각각 연평균 5.3%, 3.5%, 4.6% 그리고 4.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1차 산업 상품수출과 관련된 서비스와 관광서비스는 뉴질랜드 서비스업의 중요한 두 축이 되고 있다. 도소매업과 식당 및 호텔 서비스는 전체 서비스 경제활동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SARS와 이라크 전쟁 등으로 인해 성장이 주춤했던 관광서비스 산업도 최근 들어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서비스의 경우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로 인해 1998년 1%를 밑도는 성장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무려 6.1%에 이르는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뉴질랜드 금융서비스업은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 낮은 발전 수준과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발전 정도를 고려했을 때 다소 낮은 수준의 국내 금융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관광서비스는 뉴질랜드의 주요 외화유입 경로인 동시에 주요 성장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2004년도 통계에 따르면 2004년 9월 회계연도 기준으로 뉴질랜드를 방문한 외국인 방문객들로부터 약 66억 뉴질랜드달러에 이르는 외화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06년에는 총 242만여 명의 외국인이 뉴질랜드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05년에 비해 약 1.6% 늘어난 수치로 국별로는 호주(90만 4,000명, 37.3%), 영국(29만 5,000명, 12.2%), 미국(22만 6,000명, 9.3%) 방문객이 주를 이루고 있다. 2006년 한국인 방문객 수도 총 11만 1,000명 수준으로 2005년에 비해 약 0.6% 감소하였으나 뉴질랜드 전체 외국인 방문객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다.

뉴질랜드 통신시장은 1990년 이후 민영화를 실시하여 현재 통신서비스 관련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영기업의 민영화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상무위원회

(Commerce Commission) 내에 통신위원회를 두고 국내 통신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3. 대외관계

뉴질랜드는 ASEAN 지역포럼(ASEAN Regional(Security) Forum), APEC, 남태평양 포럼(Pacific Islands Forum) 등과 같은 지역 및 국제사회 대화채널의 많은 부분에서 인접국가인 호주와 상호 협력하고 있다. 특히 농업 수출국들로 이루어진 케언즈 그룹을 통해 WT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농업부문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티모르, 솔로몬 군도와 같은 지역 안보에서도 호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국제무대에 참여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2007년 현재 호주,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그리고 칠레와 FTA를 체결하였다. 또한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호주와 함께 ASEAN·ANZCER(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간의 FTA 협의를 이미 개시하였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평균관세율을 가지고 있는 개방형 국가라는 명성에 맞지 않게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과의 FTA가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이미 FTA를 맺은 호주는 달리 아직까지 미국과의 FTA가 진행되지 않은 점은 뉴질랜드 경제의 대외관계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뉴질랜드의 대외관계를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주요 교역상대국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호주

타즈만 해협을 경계로 마주보고 있는 호주는 뉴질랜드와 경제적·외교적

으로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웃 국가이다. 1983년 기존에 체결된 양국간 FTA 협정을 긴밀한 경제관계(CER: Closer Economic Relations) 협정으로 발전시키면서 양국은 경제적으로 보다 통일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타즈만 여행협정(Trans-Tasman Travel Agreement)으로 양국 국민은 국적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여행 및 거주를 하거나 직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즉 원하는 경우 뉴질랜드 시민권을 지닌 사람에게 호주 영주권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며, 이 점은 많은 한국의 대(對)호주 이민이 이민 심사가 까다로운 호주로 직접 가기보다 뉴질랜드를 통해 우회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항공시장 개방을 통해 양국은 단일 항공시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품 규제 및 직업에 대한 상호인증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쟁법과 은행 등 금융부문, 그리고 회계에서 양국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 표 II-8. 2006년 호주의 대뉴질랜드 10대 교역품목(HS 2단위 기준) ■

(단위: 백만 달러)

수 출			수 입		
코드	품 목 명	금 액	코드	품 목 명	금 액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769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436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685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288
87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466	48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272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398	71	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속	226
30	의약품	330	44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218
99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상품	316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217
90	광학기기, 사진용·의료용기기	256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식용의 동물성생산물	201
48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245	22	음료, 알코올, 식초	179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93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64
49	인쇄서적, 신문, 회화 및 기타 인쇄물	138	21	각종 조제식품	154
상위 10대 품목 합계		3,796	상위 10대 품목 합계		2,355

자료: UN Comtrade.

뉴질랜드와 호주 양국간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대 수출품목과 수입품목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HS 84류와 27류는 나란히 수출입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양국의 유사한 교역구조로 인해 산업 내 교역이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HS 2단위로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좀 더 세부 품목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수출입 품목 간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위 10대 수출입 품목의 합계는 각각 38억 달러와 23억 5,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입의 56%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양국간 전체 교역량은 무려 99억 달러에 달해 그 어느 국가보다 뉴질랜드와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미국

1980년대 뉴질랜드 정부의 비핵화 선언과 모든 핵추진 선박에 대한 뉴질랜드 영해 통과 금지로 뉴질랜드와 미국의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다. 이후 2001년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뉴질랜드 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2002년의 걸프 만 파병으로 양국은 외교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듯 했으나, 2003년 이라크 전쟁에 뉴질랜드가 파병을 거부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다시 냉각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군사적·외교적 이슈는 양국 관계의 다른 부문에까지 파급효과를 가져왔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이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을 거부한 것을 들 수 있다.⁶⁾ 미국 핵추진 선박에 대한 뉴질랜드 영해 진입 거부와 2003년 이라크 파병 거부는 양국간 FTA 체결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나 협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안보와 경제 문제를 연관하여 고려하는 부시정권이

6) 2003년 헬렌 클락 뉴질랜드 수상이 2001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알 고어 후보가 당선되었더라면 이라크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이라고 언급하면서 양국간 FTA 협상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물러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경우, 뉴질랜드는 미국의 새로운 FTA 협상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⁷⁾

표 11-9. 2006년 미국의 대뉴질랜드 10대 교역품목(HS 2단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수 출			수 입		
코드	품 목 명	금 액	코드	품 목 명	금 액
88	항공기와 우주선 및 그 부분품	979	02	육, 식용 설육	766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502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식용의 동물상생산물	299
99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상품	189	44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298
85	전기기와 그 부분품	170	35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효소	247
87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148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235
90	광학기기, 사진용·의료용기기	127	99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상품	212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92	21	각종 조제식료품	157
29	유기 화합품	53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147
38	각종 화학공업생산물	48	22	음료, 알코올, 식초	124
08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36	90	광학기기, 사진용·의료용기기	112
상위 10대 품목 합계		2,342	상위 10대 품목 합계		2,597

자료: UN Comtrade.

미국의 대뉴질랜드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위의 표에서 보듯이 미국은 항공기와 원자로·보일러, 전기기기, 차량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육류, 낙농품, 목재 및 목탄과 단백질계 물질·변성전분 등의 1차 산품을 주

7) 미국 무역대표부 전 대표였던 로버트 졸릭(Robert Zolick)은 미국이 FTA 협상 대상국을 선정함에 있어 외교 및 안보 협력(혹은 그 이상)이 가능한 국가를 고려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의 차기 정권에서 뉴질랜드와 유사한 외교노선을 추구하는 민주당이 새롭게 집권할 경우, 미·뉴질랜드 간의 관계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화당이 재집권할 경우에도 이라크 전쟁의 실패를 교훈삼아 경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뉴질랜드와 미국의 FTA 협상 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로 수입하고 있다. 2006년 기준 상위 10대 교역품목의 합계는 약 49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대뉴질랜드 무역 흑자는 2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다. 일본

일본의 대양주 지역에 대한 접근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서로 차이를 보인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대양주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세계 제2차 대전의 패전국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이 지역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었다. 중국의 부상, 잃어버린 10년 이후의 경제재건,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세대의 등장은 일본의 대양주 지역에 대한 접근방법이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은 뉴질랜드에 대한 정치적·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지할 수 있는 국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 문제와 지역 문제에 관한 뉴질랜드의 발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n Summit)를 기반으로 한 ASEAN+6 FTA를 추진하여 뉴질랜드의 동아시아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비록 고래나 참치 포획에 대하여 뉴질랜드와 대립을 보이기도 하지만, 동아시아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뉴질랜드로서는 일본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점에서 양국 관계는 앞으로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농축수산물 상품교역 자유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본에게 양국간 FTA는 자국 농축수산물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신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 비록 최근 양국간 FTA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나 체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10. 2006년 일본의 대뉴질랜드 10대 교역품목(HS 2단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수 출			수 입		
코드	품 목 명	금 액	코드	품 목 명	금 액
87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1,036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564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264	44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338
99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상품	176	02	육, 식용 설육	243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147	04	낙농품·조란·천연꿀 및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186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28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182
72	철강	54	08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148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47	07	식용의 채소·뿌리·과경	103
40	고무와 그 제품	46	35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효소	101
48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25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94
73	철강제품	20	21	각종 조제식료품	90
상위 10대 품목 합계		1,943	상위 10대 품목 합계		2,049

자료: UN Comtrade.

일본과 뉴질랜드 양국간 교역관계를 살펴보면, 일본은 차량, 원자로·보일러, 광물성 연료와 전기기기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상위 5대 수출품목의 합계는 상위 10대 품목 합계의 무려 9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차량 단일 품목의 수출량이 무려 10억 달러를 상회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한편 일본은 뉴질랜드에서 알루미늄, 목재·목탄, 육류와 낙농품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2006년 기준 대뉴질랜드 총 수입액은 23억 달러로 총 수출액(24억 달러)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라. 중국

세계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바탕으로 뉴질랜드에 대한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뉴질랜드는 한때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는 관련이 없는 국가로 인식되었으나, 국제 통상환경이 변화하면서 뉴질랜드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일본처럼 중국 역시 국제사회에서 뉴질랜드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서방 국가들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표 II-11. 2006년 중국의 대뉴질랜드 10대 교역품목(HS 2단위 기준) ■

(단위: 백만 달러)

수 출			수 입		
코드	품 목 명	금 액	코드	품 목 명	금 액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267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식용의 동물성생산물	271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242	44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192
61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161	51	양모, 섬수모, 조수모, 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117
62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	117	47	목재펄프, 지·판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106
94	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립식 건물	88	19	곡물(분), 전분, 밀크 조제품, 베이커리제품	70
73	철강제품	68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56
63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중고의류, 중고 방직용 섬유제품	55	41	원피(모피제외)와 가죽	55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54	15	동식물성 유지와 이들의 분해생산물, 동식물성의 납	46
64	신발류, 모자류, 지팡이,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43	48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36
95	완구, 운동용구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35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36
상위 10대 품목 합계		1,130	상위 10대 품목 합계		985

자료: UN Comtrade.

중국과 뉴질랜드 양국간 교역구조를 살펴보면, 중국은 뉴질랜드에 원자로·보일러, 전기기기, 의류와 가구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낙농품·천연꿀, 목재·목탄, 양모와 곡물 등을 뉴질랜드에서 수입하고 있어, 양국이 상호보완적인 교역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기준 대뉴질랜드 상위 10대 수출품목의 합계는 11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품목의 합계는 9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6년 기준 중국의 대뉴질랜드 총 수출액은 32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액은 12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중국은 주요 국가들 중 가장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20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마. EU

EU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무역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은 경제권으로, 뉴질랜드를 포함한 대양주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호주와의 차별화를 강조하는 뉴질랜드는 이러한 EU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중요 국제적 사안에 대해 자국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EU는 상호간 이해관계 대립 시, 자국의 정치·경제적 우월성을 이용하여 뉴질랜드를 압박하는 모습도 드러내고 있다. EU의 CAP(Common Agricultural Policy)를 개선해야 한다는 뉴질랜드의 주장을 여러 차례 거절한 사례는 그 일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EU는 회원국 중 뉴질랜드와 우호관계에 있는 영국, 네덜란드 등을 통해 각종 협상에서 EU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우회적, 전략적인 외교를 전개하기도 하였다.

표 II-12. 2006년 EU-15의 대뉴질랜드 10대 교역품목(HS 2단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수 출			수 입		
코드	품 목 명	금 액	코드	품 목 명	금 액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744	02	육, 식용 설육	1,377
87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583	08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664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323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식용의 동물성생산물	360
30	약품품	184	51	양모, 섬수모, 조수모, 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196
90	광학기기, 사진용·의료용기기	177	22	음료, 알코올, 식초	179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43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167
48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107	35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효소	167
88	항공기와 우주선 및 그 부분품	96	41	원피(모피 제외)와 가죽	157
22	음료, 알코올, 식초	66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154
38	각종 화학공업생산물	60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17
상위 10대 품목 합계		2,483	상위 10대 품목 합계		3,538

자료: UN Comtrade.

EU-15와 뉴질랜드 양측은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갖고 있다. EU의 주요 수출품을 살펴보면, EU는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차량, 전기기기와 의약품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상위 5대 수출품목에 대한 집중도가 타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편 EU는 육류, 과실·견과류, 낙농품·천연꿀, 양모 등의 1차 산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육류(HS 02류)의 경우 2006년 기준 수입액이 무려 14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2006년 기준 EU의 대뉴질랜드 총 수출액은 42억 7,000만 달러, 총 수입액은 33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4. 뉴질랜드 향후 경제전망

가. 단기 경제전망

이자율 상승, 주택경기 하강, 환율 평가절상 등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율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06년 뉴질랜드의 경제성장률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1.7%)을 기록했다. 하지만 2007/2008년에는 대내외 경제부문이 균형을 이루면서 2% 후반에서 3% 초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6년 부진했던 민간소비가 살아나면서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역대 최고 수준의 교역조건과 에너지가격 안정세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개선되면서 투자를 늘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가 호조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연초 배럴당 50달러대 중반에서 60달러대 중반으로 상승했으며, 60달러대 후반에서 70달러대까지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2007년 민간투자 증가세의 최대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타이트한 노동시장과 그에 따른 임금상승, 일시적으로 주춤했던 자산가격의 재상승 기조 및 “Working for Families” 조세지출 확대 등에 따른 가처분 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계소비 역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중앙은행(Reserve Bank of New Zealand)에 따르면, 2007년 1/4분기 실업자 수는 5분기 만에 다시 감소세(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1.6%)로 돌아섰다. 비록 이자율이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인 7.75%(2007년 4월)로 인상되어 민간소비를 제한할 것으로 보이나, 모기지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데 따라 주택경기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부문의 위축이나 자산시장의 급격한 위축에 따른 민간소비 감소 내지 내수의 급감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곤란하다.

만성적으로 부채에 의존해 온 민간소비와 주택구입 행태 및 높은 이자율, 이민유입의 둔화 추세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은 장기적으로 둔화될 전망이며, 타이트한 노동시장과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이익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민간소비는 2007/2008년 이후 증가율이 다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정부부문의 완만한 재정확장 기조도 경제회복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흑자재정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대외부문의 경우는 낙농제품 등 1차 상품에 대한 높은 해외수요와 사상최고의 교역조건에 힘입어 수출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무역적자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무역적자 규모는 2006년 2/4분기 GDP 대비 9.7%까지 확대되었으나 4/4분기 9.0%수준으로 소폭 축소되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GDP의 10%에 가까운 무역 적자는 여전히 뉴질랜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뉴질랜드 달러화의 미국 달러화 대비 절상기조가 무역수지 불균형을 고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006년에는 미 달러화 대비 환율의 절상 추세가 다소 둔화(2005년 말 1.47에서 2006년 말 1.46NZ\$/US\$로 절상)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글로벌 달러 약세,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이자율 인상, 수출단가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폭 감소, 내수의 회복 조짐 등이 뉴질랜드 달러의 절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07년에 약 10% 가량의 추가 절상이 예상된다. 다만 높은 수준의 무역수지 적자의 지속과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진행이 뉴질랜드 대미 달러 환율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장기적 전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수출 증가세는 1차 상품에 대한 해외수요 증가, 주요 교역파트너인 호주와 동아시아 경제의 호조 및 수출가격 상승에 따라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낙농제품의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교역조건 역시 상승 추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하겠지만, 계속해서 30년래 최

고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다. 다만 기쁨에 따른 농산물 생산 감소로 인해 수출 증가 추세가 다소 둔화되고, 환율 절상에 따라 공산품과 서비스 수출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 적자폭은 수출 확대에 힘입어 2006년의 9.0%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GDP 대비 8%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표 II-13. 향후 경제전망 ■

구 분	단 위	2006	2007	2008
실질 GDP 성장률	%	1.7	2.6	2.8
실업률(연 평균)	%	3.8	3.7	3.6
소비자물가상승률(연 평균)	%	3.4	2.7	2.7
재정수지(GDP 대비)	%	2.8	3.1	2.6
경상수지(GDP 대비)	%	-9.4	-7.7	-7.6
환 율(연평균)	NZ\$/US\$	1.54	1.39	1.35

자료: Global In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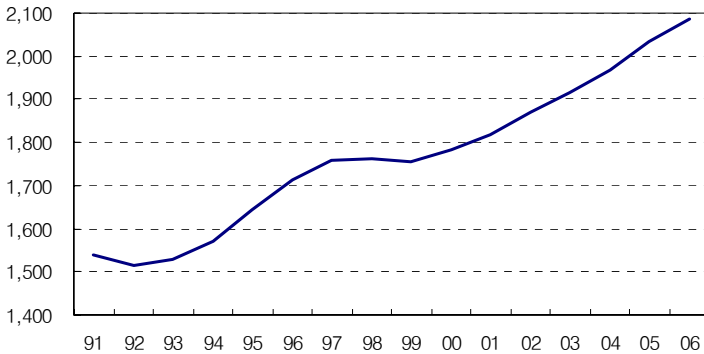
나. 뉴질랜드 경제의 중장기적 위험요인

1) 낮은 노동생산성

2000년대 뉴질랜드 경제성장은 1990년대 초반의 노동시장 개혁에 따른 노동력의 시장유입 증가에 기인한 바가 크다(그림 II-4 참조). 뉴질랜드 노동가용인구의 노동활용도(labor utilization)는 1992년 57%에서 2006년 66%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현재 OECD 국가 중 체코에 이어 가장 높은 노동활용도에 해당된다. 이러한 노동력 유입의 증가는 뉴질랜드 경제 회복의 원동력이 되었다.

■ 그림 11-4. 뉴질랜드 노동인구 유입 추이(1991~2006) ■

(단위: 천 명)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그러나 노동시장의 확대에 비해 노동생산성 증가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뉴질랜드 노동생산성 증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 축산과 낙농을 포함한 몇몇 부문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기업이나 사업이 전무하고 주로 중소기업 위주의 경제가 유지됨에 따라 생산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과, 높은 이자율과 불안한 환율시장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주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생산성 문제는 향후 뉴질랜드 경제 전망에서 지속적인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2) 경상수지 적자

뉴질랜드의 2006년도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무려 9%에 달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2001년에 잠시 회복되는 듯 보였던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4.1%를 기록하였고, 이후 뉴질랜드 달러에 대한 평가절상과 주요 수출품목인 낙농제품에 대한 국제가격 하락,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수입(Investment Income)이 줄어들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GDP 대비 6.7%와 8.9%로 증가하게 되었다.

무역수지 적자 증가도 경상수지 적자폭 증가의 한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보다 중요한 요인은 투자수입 적자폭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1990년대부터 나타난 투자수입 적자는 뉴질랜드 내로 유입되는 직접투자나 포트폴리오 투자가 뉴질랜드 개인/기업들의 해외투자를 크게 넘어서고, 뉴질랜드의 투자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 소유 뉴질랜드 기업이 증가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2001/02년도에 70억 9,000만 뉴질랜드달러에 달했던 투자수입 적자는 2005/06년도에는 111억 8,000만 뉴질랜드달러로 4년 만에 58%가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 적자폭 증가와 함께 경상수지 적자가 같은 기간 39억 3,000만 뉴질랜드달러에서 149억 2,000만 달러로 무려 280% 증가하였다.

■ 표 II-14. 뉴질랜드 경상수지 ■

(단위: 백만 뉴질랜드달러)

	2002	2003	2004	2005	2006
상품 수출	32,867	30,648	29,054	31,114	31,485
상품 수입	30,533	29,982	30,246	33,363	35,737
무역 수지	2,334	666	-1,192	-2,249	-4,252
서비스 수출	10,827	11,690	11,293	11,847	11,805
서비스 수입	10,245	10,113	10,009	11,168	11,732
서비스 수지	582	1,577	1,284	679	73
순 투자수익	7,090	7,043	7,211	9,736	11,183
순 이전수지	246	113	238	377	441
경상수지	-3,928	-4,687	-6,881	-10,929	-14,921

주: 뉴질랜드의 회계연도(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기준임.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또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가 주로 해외자본 유입을 통해 유지됨으로써 GDP 대비 총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폭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1년 GDP 대비 113.6%이던 총부채 비율은 이후 다소 줄었으나 2006년 115.7%로 늘어났

다. 이러한 외채의 대부분은 주로 민간부문 부채로, 2000년대 들어 시작된 부동산 투자 붐은 민간부문의 소비와 부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부동산시장 과열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이자율을 높임으로써 다른 국가들과의 이자율 차이로 인한 해외 단기자본 유입을 촉발하였다.

■ 표 II-15. 뉴질랜드 대외부채 ■

(단위: 백만 뉴질랜드달러)

	2002	2003	2004	2005	2006
정부 부문 (GDP 대비 비중, %)	20,069 (16.1)	17,699 (13.6)	18,180 (13.1)	17,354 (11.7)	17,801 (11.4)
기타 부문 (GDP 대비 비중, %)	121,595 (97.6)	125,185 (95.8)	130,897 (94.1)	146,396 (98.5)	162,211 (104.3)
총 계 (GDP 대비 비중, %)	141,664 (113.7)	142,884 (109.3)	149,076 (107.2)	163,750 (110.1)	180,013 (115.7)

주: 뉴질랜드의 회계연도(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기준임.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이러한 점에서 뉴질랜드의 현재 경상수지 적자 문제는 부동산시장 과열과 관련된 국내 문제에서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의 과열 상황은 뉴질랜드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선호를 부추기게 되었고 중앙은행은 부동산 버블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자율을 상향조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저축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부동산 구입을 위한 국내 부동산 모기지(mortgage)는 주로 외국 은행에서 자본을 조달하였는데, 이는 모기지 자금에 대한 국내 수요와 높은 이자율에 따른 외국계 금융의 공급이 적절히 작용함에 따라 가능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뉴질랜드는 상품 교역수지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달러가 절상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는 교역수지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경상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뉴질랜드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향후 뉴질랜드 정부의 대응 방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및 엔캐리 자금 청산

지난 1년 이상 강세가 지속된 뉴질랜드 달러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와 함께 급격히 평가절하 되었다. 2007년 7월 4주차에 0.81US\$/NZ\$의 최고치를 기록한 뉴질랜드 통화는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인 2007년 8월 17일에 0.69US\$/NZ\$를 기록하여 4주 만에 14.5% 하락하였다. 유로와 엔화에 대한 뉴질랜드 달러의 가치도 각각 12.0%와 19.5% 하락하면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9월 초 0.68US\$/NZ\$까지 떨어졌던 뉴질랜드 달러는 9월 중순부터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평가절상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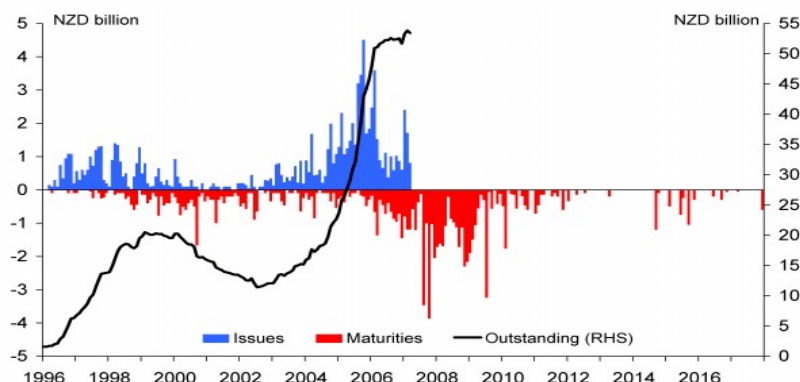
■ 그림 II-5. 뉴질랜드 환율 동향 ■



자료: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

뉴질랜드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지난 7월 26일 2007년 들어 네 번째로 0.25%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8.25%의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이자율은 엔캐리 및 유로 자금 유입을 촉발하여 자국 통화의 평가절상을 불러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뉴질랜드 통화표시 해외채권의 규모는 뉴질랜드 GDP의 약 1/3에 해당하는 540억 뉴질랜드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는 뉴질랜드 금융시장에 커다란 충격이 되었다. 특히 2007년 말에서 2008년까지 상당량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엔캐리가 과거와 같이 순조롭게 연장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 그림 II-6. 뉴질랜드 통화표시 해외채권 발행(Eurokiwi & Uridashi) ■



자료: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 (2007), "Global Liquidity and its Impact on New Zealand," (3, 15)

미국발(發) 서브프라임 사태는 뉴질랜드에 단기적인 충격으로 끝날 수도 있으나, 엔캐리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경우 유동성에 심각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엔캐리 자금이 뉴질랜드 통화표시 해외채권에 재투자될 경우 정부 및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조치 없이 신용경색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많은 엔캐리 자금이 채권 만기와 더불어

빠져나갈 경우에는 이는 이미 OECD 최고인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하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세계의 금융경색이 아직도 안개 속에 가려진 가운데, 뉴질랜드의 유동성 위기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주택시장 과열에서 시작된 엔캐리 자금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않는 한, 이러한 금융경색의 위험성은 향후 뉴질랜드 경제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

한 · 뉴질랜드 경제관계

1. 교역관계

2006년도 한국의 대뉴질랜드 수출은 6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0.4%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9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8.6%의 성장을 보였다. 뉴질랜드는 한국의 55번째 수출 대상국이면서 32번째 수입 대상국으로 1990년 이래로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이 대뉴질랜드 교역에서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이유로 먼저 한국과 뉴질랜드의 교역구조를 들 수 있다. 한국의 대뉴질랜드 주요 수입 품목이 쇠고기, 낙농, 목제품 등 가격탄력성이 낮은 1차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세계시장에서 국가/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제조업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한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를 위해서는 수입 감소보다 수출 증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400만의 적은 인구는 한국의 대뉴질랜드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기 힘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더불어 중국 상품의 뉴질랜드 시장 진출이 한국의 대뉴질랜드 수출에 새로운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 표 III-1. 한국·뉴질랜드 교역 현황 ■

(단위: 천 US달러, %)

	수 출	증가율	수 입	증가율	무역수지
1990	129,695	-15.8	451,706	41.4	-322,011
1991	120,216	-7.3	500,693	10.9	-380,477
1992	112,763	-6.2	488,145	-2.5	-375,382
1993	124,423	10.3	570,715	16.9	-446,292
1994	157,163	26.3	662,879	16.2	-505,716
1995	201,614	28.3	817,197	23.3	-615,583
1996	233,202	15.7	816,227	-0.1	-583,025
1997	241,027	3.4	749,914	-8.1	-508,887
1998	208,704	-13.4	504,483	-32.7	-295,779
1999	277,326	32.9	592,325	17.4	-314,999
2000	286,092	3.2	701,823	18.5	-415,731
2001	272,162	-4.9	743,398	5.9	-471,236
2002	322,235	18.4	752,881	1.3	-430,646
2003	432,784	34.3	707,556	-6	-274,772
2004	620,181	43.3	879,269	24.3	-259,088
2005	670,306	8.1	890,970	1.3	-220,664
2006	672,981	0.4	967,477	8.6	-294,496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뉴질랜드가 한국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크지 않은 것과는 반대로, 한국은 뉴질랜드에게 호주, 미국, 일본, 중국, 영국에 이어 6위의 수출 대상으로 2006년 전체 수출의 3.98%를 차지하였고, 수입에서는 총 수입의 2.92%를 기록하였다.⁸⁾ 따라서 뉴질랜드 교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의 교역에서 뉴질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석유 및 역청물질(HS 27류), 자동차 및 부품품(HS 87류), 전기기기 및 그 부분품(HS 85류) 등이 있으며 이들 수출품목이 총 수출에서 5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8) Statistics New Zealand 자료.

표 III-2. 한국의 대뉴질랜드 주요 수출품목

(단위: 천 US달러, %)

순위	품목코드 (HS 2단위)	품목명	2005		2006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계			670,306	8.1	672,981	0.4
1	27	광물성연료, 역청, 왁스 등	79,178	-30.6	126,363	59.6
2	87	수송기계 및 부분품	94,422	111.4	122,479	29.7
3	85	전기기계 및 부분품	116,533	8.3	87,388	-25
4	84	보일러, 기계류 및 부분품	67,225	13.5	60,215	-10.4
5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46,240	-5.3	56,063	21.3
6	72	철강	56,955	5.6	41,599	-27
7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	59,076	36.1	38,025	-35.6
8	48	종이제품, 펄프 등	19,579	39.1	21,656	10.6
9	40	고무와 고무제품	19,636	-1.2	16,710	-14.9
10	38	각종 화학공업생산물	10,958	6.8	11,700	6.8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한국의 주요 수입품목은 목재 및 목제품(HS 44류), 육류(HS 02류), 알루미늄 및 제품(HS 76류), 과일, 낙농품 등이며, 목재·목제품 및 육류가 전체 수입액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양국의 교역구조는 농산품과 광물 등의 1차 산품을 수출하고, 자동차, 전자기계 등을 수입하는 뉴질랜드의 대(對)세계 교역구조와 일치한다. 뉴질랜드의 상위 5대 수출품목인 낙농제품, 육류, 목재 및 목제품, 일반기계, 과일 중 4개 품목이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품목이며, 뉴질랜드의 상위 5대 수입품목인 수송기계, 일반기계, 광물연료, 전자기계, 플라스틱 및 제품은 우리나라의 뉴질랜드 주요 수출품목과 일치한다.

■ 표 III-3. 한국의 대뉴질랜드 주요 수입품목 ■

(단위: 천 US달러, %)

순위	품목코드 (HS 2단위)	품목명	2005		2006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계			890,970	1.3	967,477	8.6
1	44	목재와 목제품	297,195	-3.8	328,628	10.6
2	02	육류	181,287	28.3	165,574	-8.7
3	76	알루미늄 및 제품	46,024	23.1	55,419	20.4
4	08	과일	44,837	13.5	46,877	4.6
5	04	낙농품, 꿀 등	52,976	16.2	44,291	-16.4
6	47	목재펄프, 제지 등	35,953	-6.9	40,956	13.9
7	35	단백질계 물질 등	25,429	4.8	28,469	12
8	05	기타 동물성생산물	19,377	34.9	25,710	32.7
9	74	동 및 동제품	905	-45.7	23,678	2,515
10	41	원피(모피제외)와 가죽	26,944	-45.8	18,848	-30.0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2. 투자관계

양국간 교역관계가 한국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처럼,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크지 않다. 전주제지(주) (현 한솔제지)가 뉴질랜드에 투자를 하면서 시작된 한국의 대뉴질랜드 투자는 1990년까지는 총 4건에 160만 달러 투자가 고작일 정도로 미미했다. 1990년대 초반 한국의 해외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던 시기에 대뉴질랜드 투자도 더불어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으나, 당시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들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순위의 투자대상국으로 분류되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냉각된 대뉴질랜드 투자는 이후 서서히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며 2003년 한 해에

만 3,30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연도별 최고 투자액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대뉴질랜드 직접투자액은 대(對)세계 직접투자액의 약 0.2%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전체 FDI 유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 2006년까지 총 258건, 약 2억 6,000만 달러의 대뉴질랜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2003년에 최고 투자액인 3,3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큰 폭의 변동 없이 2,000만 달러 내외의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대에 활발히 진행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두 가지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진출국 내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해외 생산기지 건설을 위한 진출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의 주요 수출국 내 직접생산이나 지사 설립을 위한 투자이다. 뉴질랜드는 한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에서 앞서 있었으나, 400만의 적은 인구와 남반구에 동떨어져 있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이나 전략적 진출국가로 분류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뉴질랜드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이 한국 제조업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진 국가나 미국과 같은 주요 수출시장에 비해 해외직접투자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진출 대상국이 되었다.

표 III-4 한국의 대뉴질랜드 연도별 투자 추이

(단위: 천 달러, 신고기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누 계
건 수	57	67	59	32	14	9	10	258
금 액	101,958	14,776	28,471	33,357	24,269	24,169	21,545	260,909

주: 2000년 데이터는 1962~2000년 누적 데이터이며, 누계에 2007년 10건, 12,364천 달러가 포함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하지만 한국의 대뉴질랜드 투자는 뉴질랜드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 한국이 전형적으로 갖고 있는 투자 구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한국의 대뉴질랜드 업종별 투자 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의 뉴질랜드 투자는 주로 농림수산

업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농림어업 부문이 한국의 전체 뉴질랜드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누적 투자액을 기준으로 약 46%에 이를 만큼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건설업(15.7%)과 도소매업(9.2%), 음식숙박업(9.0%)이 차례로 잇고 있다. 반면에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약 1,400만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약 5% 정도를 차지하면서 매우 낮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뉴질랜드 농림수산업 부문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은 뉴질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비교우위를 이용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뉴질랜드의 상대적으로 넓은 영토와 청정지역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임업과 축산업을 중심으로 진출해 있으며, 동 부문에 대한 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표 III-5. 한국의 대뉴질랜드 업종별 투자 구조 ■

(단위: 천 달러, 신고기준)

업 종	건 수	금 액	비 중 ¹⁾
농림수산업	20	118,712	45.5
제조업	26	13,650	5.2
건설업	10	40,974	15.7
도소매업	66	23,888	9.2
운수창고업	9	5,913	2.3
통신업	1	217	0.1
숙박음식점업	80	23,512	9.0
서비스업	39	19,165	7.3
부동산업	7	14,878	5.7
총 계	258	260,909	100.0

주: 1) 한국의 대뉴질랜드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단위는 %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반면에 뉴질랜드의 대(對)한국 직접투자가 우리나라 총 FDI 유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 미만(국별 순위 48위)으로 전체 58건, 3,757만 달러에 불과하다. 주요 투자기업은 도·소매(유통), 비즈니스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들로 제조업이 17건, 592만 달러인데 반해 서비스업은 41건, 3,165만 달러에 이른다. 특히 도소매업의 경우, 대(對)한국 투자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투자기업으로는 뉴질랜드 교육문화원, (주)메타넥스 코리아, (주)캐대쉬, (주)이지웨이 등이 있다.

■ 표 III-6. 뉴질랜드의 대(對)한국 연도별 투자 추이 ■

(단위: 천 달러, 신고기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누 계
건 수	24	5	5	2	9	10	3	58
금 액	17,884	613	402	86	16,752	1,669	168	37,573

주: 2000년 데이터는 1962~2000년 누적 데이터임.
자료: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 표 III-7. 산업별/연도별 뉴질랜드 대(對)한국 투자 ■

(단위: 천 달러)

산 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제조업		83	2	125	1,197	60
화학 제품				125		
기계·설비					984	
전기기기		83	2		213	
수송기기						60
서비스	614	319	84	16,627	473	108
도소매업	47	179		16,432	53	55
호텔·레스토랑		100	84		50	
부동산				60		
통신					300	
사업서비스	134			45		53
문화·여가서비스				90		
공공서비스	433	40			70	
총 계	613	402	86	16,752	1,669	168

자료: 산업자원부.

3. 한국과 뉴질랜드의 산업경쟁력 분석

국가 간의 산업경쟁력을 비교하는 방법론은 매우 다양하나, 여기에서는 수출·수입 및 교역 등 무역 측면에서 분석하는 방법론을 통해 한국과 뉴질랜드의 산업경쟁력을 알아볼 것이다. 수출·수입 및 교역의 금액을 무역지수로 환산하는 방법은 크게 현시비교우위 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 수출경합도 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 및 무역집중도 지수(TII: Trade Intensity Index) 등 크게 네 가지가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무역지수로 살펴본 한국과 뉴질랜드의 산업별 경쟁력, 전반적인 경쟁력 및 양국 상호 간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RCA 지수를 사용하여 한국과 뉴질랜드의 대(對)세계 및 대(對)경쟁국 경쟁력 분석을 실시할 것이며, TSI, ESI, TII, 지수를 사용하여 한국과 뉴질랜드의 상호 경쟁력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가. 현시비교우위 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지수는 한 경제의 총수출에서 특정상품군(commodity group)이 차지하는 비중을 세계경제 전체의 총수출에서 특정상품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RCA 지수는 특정상품군이 무역 패턴의 형태로 드러나고 정부의 정책 등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는 한, 값이 1보다 크거나 작을수록 한 경제에서 특정상품군의 비교우위가 더 강해지거나 약아진다.

RCA 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frac{X_i^k / X_w^k}{X_i / X_w} \quad (X \text{는 수출, } k \text{는 특정상품군, } i \text{는 특정국가, } w \text{는 세계})$$

RCA 지수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은 섬유·의류,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자기계, 수송 장비와 기타 수송 장비 산업에서 뉴질랜드의 동종 산업에 비해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수송 장비 산업(2005년)에서 한국은 1.39, 뉴질랜드는 0.11로 격차가 현격하여, 경쟁력 차이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RCA 지수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보면 다소 흥미로운 점이 관찰된다. 한국의 가죽제품, 섬유·의류 및 일반기계 상품군(산업)의 경우는 RCA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정밀기계, 수송 장비 및 기타 수송 장비 산업의 RCA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속적인 상승 및 하락의 결과로, 2005년 섬유·의류 및 일반기계 산업은 비교열위 산업으로, 정밀기계 산업은 비교우위 산업으로 전환되었다.

뉴질랜드의 비교우위 산업은 1차 상품(Primary products), 가공된 1차 상품(Processed primary products), 가죽제품, 목재·제지 산업 등으로, 특히 1차 상품 산업의 비교우위가 강하다. RCA 지수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보면, 가죽제품의 RCA 지수는 점진적으로 하락 중인 반면, 가공된 1차 상품 산업의 RCA 지수는 상승 중이다.

양국의 RCA 지수를 비교한 결과 첫째, 한국에서 높은 RCA 지수를 기록한 산업의 뉴질랜드 RCA 지수는 낮게 나타났고, 뉴질랜드에서 높게 나타난 경우는 한국에서 낮게 나타났다. 그 예로 한국에서 기타 수송 장비 산업은 매우 높은 RCA 값(2005년 2.71)을 보여주지만 뉴질랜드(2005년 0.78)에서는 1 이하였으며, 뉴질랜드가 높은 RCA를 기록한 1차 상품 산업(2005년 12.50)의 경우는 그 반대(2005년 0.12)를 보이고 있다. 둘째, 양국 모두 RCA 값에서 비교우위를 보이는 산업은 없는 반면, 광물가공제품(Processed mineral products), 화학·고무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기타 제조업의 경우에는 양국 모두 RCA 값이 1 이하를 기록하여 비교열위 산업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양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은 한국과 뉴질랜드가 서로 다르며, 한국이 제조업에서 우위를 보인 반면, 뉴질랜드는 1차 상품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보였다.

표 III-8. 한국과 뉴질랜드의 산업별 RCA 지수

산 업	한 국				뉴질랜드			
	2002	2003	2004	2005	2002	2003	2004	2005
1차 산품	0.19	0.15	0.14	0.12	11.32	11.27	12.17	12.50
가공된 1차 산품	0.25	0.24	0.22	0.21	1.62	1.73	2.01	2.42
가공된 광물제품	0.53	0.42	0.42	0.48	0.24	0.17	0.15	0.16
화학/고무제품	0.80	0.81	0.83	0.89	0.62	0.58	0.53	0.52
가죽제품	1.03	0.77	0.62	0.51	3.23	3.13	2.72	2.45
목재/제지	0.33	0.33	0.31	0.29	3.19	3.01	3.10	3.07
섬유/의류	1.57	1.25	1.03	0.92	0.77	0.79	0.79	0.80
비금속 광물제품	0.53	0.73	0.68	0.29	0.45	0.44	0.41	0.44
금속제품	1.06	1.11	1.05	1.11	0.99	0.95	0.90	0.89
일반기계	1.14	1.13	1.08	0.95	0.29	0.34	0.36	0.38
정밀기계	0.33	0.47	0.66	1.19	0.36	0.40	0.38	0.34
전자기계	1.88	2.07	2.08	2.06	0.22	0.23	0.24	0.24
수송 장비	1.01	1.17	1.29	1.39	0.10	0.11	0.11	0.11
기타 수송 장비	2.28	2.38	2.69	2.71	0.45	0.77	0.66	0.78
기타 제조업	0.38	0.34	0.31	0.30	0.30	0.33	0.36	0.34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HS Code 4단위 기준 1,244개 상품군(2002년 기준)을 살펴보면, 1,000개 이상의 상품군에서 RCA 지수가 1 이하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 2003년 이래 RCA 값이 1 이상인 산업이 2003년 244개, 2004년 220개, 2005년 207개로 줄어들고 있어, 비교우위 산업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은 모든 상품군에서 $RCA < 1$ 인 세부상품군이 $RCA > 1$ 인 상품군보다 많으며,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로 가죽제품 산업은 $RCA > 1$ 인 세부상품군이 12개로 1 이하의 9개에 비해 더 많은 유일한 산업이다.

표 III-9. 세부산업별 RCA 지수 분포 현황

산 업		한 국				뉴질랜드			
		2002	2003	2004	2005	2002	2003	2004	2005
1차 상품	RCA1	4	4	3	3	42	44	45	43
	RCA1	90	90	91	91	52	50	49	51
가공된 1차 상품	RCA1	4	5	4	5	33	33	36	34
	RCA1	102	101	102	101	73	73	70	72
가공된 광물제품	RCA1	13	15	13	13	5	5	6	6
	RCA1	104	102	104	104	112	112	111	111
화학/고무제품	RCA1	26	26	28	30	19	19	19	18
	RCA1	144	144	142	140	151	151	151	152
가죽제품	RCA1	5	5	3	3	12	12	12	12
	RCA1	16	16	18	18	9	9	9	9
목재/제지	RCA1	5	4	4	5	22	24	25	24
	RCA1	63	64	64	63	46	44	43	44
섬유/의류	RCA1	63	55	47	39	15	18	21	19
	RCA1	110	118	126	134	158	155	152	154
비금속 광물제품	RCA1	8	10	11	9	4	5	5	5
	RCA1	59	57	56	58	63	62	62	62
금속제품	RCA1	46	52	45	42	20	23	26	21
	RCA1	111	105	112	115	137	134	131	136
일반기계	RCA1	21	21	21	22	11	14	18	17
	RCA1	64	64	64	63	74	71	67	68
정밀기계	RCA1	4	5	4	3	5	4	5	5
	RCA1	43	42	43	44	42	43	42	42
전자기계	RCA1	18	18	18	17	6	5	5	6
	RCA1	29	29	29	30	41	42	42	41
수송 장비	RCA1	3	3	2	3	1	1	1	1
	RCA1	13	13	14	13	15	15	15	15
기타 수송 장비	RCA1	6	7	4	3	4	5	4	3
	RCA1	16	15	18	19	18	17	18	19
기타 제조업	RCA1	15	14	13	10	4	4	5	3
	RCA1	39	40	41	44	50	50	49	51
합 계	RCA1	241	244	220	207	203	216	233	217
	RCA1	1,003	1,000	1,024	1,037	1,041	1,028	1,011	1,027
	합 계	1,244	1,244	1,244	1,244	1,244	1,244	1,244	1,244

HS Code 4단위 기준 1,244개 상품군(2005년 기준) 중에서 RCA 값이 가장 높은 세부상품군(품목군)은 한국의 경우 HS 8901(상선 등)과 HS 8905(특수선, 해상구조물 등)였으며, 뉴질랜드는 0204(양·염소 고기)와 4701(목재·펄프)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결과와 대비할 때 흥미로운 점은 한

국의 섬유·의류 산업의 경우 전체 RCA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HS Code 4단위로 살펴본 상위 15대 품목군 중 6개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경쟁력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부상품군 중 일정 상품군의 경쟁력은 아직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표 III-10. RCA 지수 상위 15대 품목 ■

순위	한 국			뉴질랜드		
	HS 4	산 업	RCA	HS 4	산 업	RCA
1	8901	기타 수송 장비	11.03	0204	1차 산품	177.61
2	8905	기타 수송 장비	10.58	4701	목재/제지	134.49
3	9013	정밀기계	9.27	0507	1차 산품	102.77
4	2837	가공된 광물제품	8.75	3501	화학/고무제품	98.41
5	4013	화학/고무제품	8.68	0208	1차 산품	93.87
6	2917	화학/고무제품	8.45	3502	화학/고무제품	93.34
7	6507	섬유/의류	7.62	2619	가공된 광물제품	84.36
8	2808	가공된 광물제품	7.56	0402	1차 산품	76.29
9	6004	섬유/의류	7.55	5101	섬유/의류	71.08
10	5503	섬유/의류	6.51	0405	1차 산품	68.78
11	5807	섬유/의류	5.91	0202	1차 산품	58.72
12	8540	전자기계	5.78	0404	1차 산품	57.96
13	3903	화학/고무제품	5.45	4102	가죽제품	51.78
14	5501	섬유/의류	5.19	0810	1차 산품	50.03
15	6001	섬유/의류	5.17	0506	1차 산품	45.49

나.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

앞에서 RCA 지수는 한국·뉴질랜드 교역관계의 두 가지 중요한 특성(양국의 비교우위 산업이 서로 상이하게 달라 한국은 제조업에서, 뉴질랜드는 1차 산품에서 비교우위를 가짐)을 보여주었다. 한국과 뉴질랜드의 세계시장 경쟁력을 이해하기 위해 이번 장에서는 한국과 뉴질랜드가 세계교역 측면에서

어떤 경쟁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무역특화지수는 한 상품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그리고 전체 무역액을 이용해 상품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 무역특화지수 = (상품의 총수출액 - 총수입액) ÷ (총수출액 + 총수입액)

$$TSI_{ij} = \frac{X_{ij}^k - M_{ij}^k}{X_{ij}^k + M_{ij}^k}, (X \text{ 수출}, M \text{ 수입}, k \text{ 산업}, i \cdot j \text{ 각각의 수출수입국})$$

이 지수가 0인 경우 비교우위는 중간 정도이며 1이면 완전 수출특화 상태(수입은 전혀 하지 않고 수출만 한다는 뜻)를 말한다. 또 -1이면 완전 수입특화 상태이다. 이 지수는 국제경쟁력 지수로 사용되는데, 0 이상 1 이하이면 그 제품이나 산업이 무역 흑자를 기록해 국제경쟁력이 강하다는 것을 뜻하고, -1에 가까울수록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하거나 수출이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2005년 한국의 대(對)세계 TSI와 뉴질랜드의 대(對)세계 TSI를 살펴보면, 한국의 전 산업 TSI는 0.04, 뉴질랜드의 전 산업 TSI는 -0.09였다. 이는 한국이나 뉴질랜드 모두 수출·수입 특화가 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 산업의 TSI 값은 “무역수지/교역액”이므로 지수 값 자체는 큰 의미가 없으나, 산업별 TSI 값은 특정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준다.

한국의 대(對)세계 TSI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화학·고무제품, 섬유·의류, 일반기계, 전자기계, 수송 장비 및 기타 수송 장비 산업의 TSI가 0 이상으로 수출특화 산업임을 알 수 있다. 이는 RCA 분석에서 나온 결과와 다소 유사하다. 다만 RCA 분석에서는 금속산업을 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분류하였지만, TSI 분석에서는 화학·고무제품 산업을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TSI 지수의 동태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RCA 지수와 유사하게 가죽제품, 섬유·의류, 일반기계 산업에서는 TSI가 감소했으며, 정밀기

계, 전자기계, 수송 장비 산업에서는 TSI가 증가했다. 뉴질랜드의 TSI 분석 결과도 RCA 분석과 마찬가지로 1차 산품(Primary products), 가공된 1차 산품 (Processed primary products), 가죽제품, 목재·제지 산업에서 수출특화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가죽제품의 TSI는 감소 추세, 가공된 1차 산품의 TSI는 증가 추세로 동태적 변화 역시 RCA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수출특화를 보이고 있는 산업에서 뉴질랜드는 수입특화를 보이고 있으며, 뉴질랜드가 수출특화된 산업은 한국에서 수입특화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는 양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상호보완적임을 나타낸다.

■ 표 III-11. 한국과 뉴질랜드의 산업별 대(對)세계 TSI 지수 ■

산 업	한 국				뉴질랜드			
	2002	2003	2004	2005	2002	2003	2004	2005
1차 산품	-0.66	-0.69	-0.68	-0.71	0.87	0.88	0.89	0.87
가공된 1차 산품	-0.44	-0.41	-0.42	-0.42	-0.01	0.00	0.10	0.13
가공된 광물제품	-0.67	-0.70	-0.66	-0.64	-0.71	-0.78	-0.70	-0.80
화학/고무제품	0.05	0.07	0.11	0.12	-0.31	-0.35	-0.37	-0.41
가죽제품	-0.08	-0.11	-0.12	-0.21	0.62	0.64	0.59	0.52
목재/제지	-0.37	-0.33	-0.29	-0.31	0.44	0.33	0.48	0.31
섬유/의류	0.42	0.39	0.36	0.30	-0.13	-0.12	-0.13	-0.18
비금속 광물제품	-0.26	-0.16	-0.15	-0.35	-0.23	-0.27	-0.29	-0.29
금속제품	-0.08	-0.08	-0.13	-0.11	0.03	0.00	0.00	-0.02
일반기계	0.22	0.22	0.23	0.16	-0.54	-0.51	-0.49	-0.50
정밀기계	-0.54	-0.44	-0.30	-0.04	-0.44	-0.45	-0.43	-0.51
전자기계	0.16	0.18	0.23	0.25	-0.48	-0.52	-0.51	-0.53
수송 장비	0.73	0.76	0.80	0.80	-0.87	-0.88	-0.89	-0.88
기타 수송 장비	0.79	0.81	0.77	0.74	-0.39	-0.32	-0.41	-0.47
기타 제조업	-0.05	-0.04	-0.10	-0.08	-0.59	-0.61	-0.59	-0.64
합 계	0.03	0.04	0.06	0.04	-0.02	-0.06	-0.02	-0.09

한국의 대뉴질랜드 TSI 지수를 살펴보면, 뉴질랜드와의 교역관계에서 무역적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로 나타난다. 그러나 산업별 대뉴질랜드 TSI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를 보이고 있어 수출특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가공된 광물제품 산업, 섬유·의류, 비금속 광물제품, 일반기계, 전자기계, 수

송 장비 산업의 TSI 값은 0.5 이상으로 수출특화한 산업임을 보여준다. 특히 비금속 광물제품과 수송 장비 산업의 TSI 값은 0.9 이상으로 대뉴질랜드 교역에 있어서 매우 강한 수출특화 상태에 있다. 특히 2004년의 경우 기타 수송 장비 산업의 TSI 값은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데, 이는 금액 비중이 큰 선박의 1회성 수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TSI 지수의 동태적 변화를 보면, 화학·고무제품 산업의 대뉴질랜드 TSI 값은 증가 추세이며 일반기계는 감소 추세에 있다. 아울러 한국의 1차 산품, 가공된 1차 산품, 가죽제품 및 목재·제지 산업은 대뉴질랜드 TSI가 (-)로, 한국이 대뉴질랜드 교역관계에서 수입특화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對)세계 RCA/TSI 지수분석에서 보여준 것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한국과 뉴질랜드가 서로 경합하는 상품군이 거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한다.

■ 표 III-12. 한국의 대뉴질랜드 TSI 지수 ■

산 업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차 산품	-0.71	-0.67	-0.71	-0.68	-0.77
가공된 1차 산품	-0.63	-0.56	-0.64	-0.69	-0.64
가공된 광물 제품	0.64	0.93	0.90	0.94	0.71
화학/고무제품	-0.39	0.09	0.01	0.33	0.26
가죽제품	-0.99	-0.99	-0.98	-0.97	-0.96
목재/제지	-0.94	-0.93	-0.92	-0.89	-0.89
섬유/의류	0.71	0.74	0.76	0.58	0.84
비금속 광물 제품	0.83	0.80	0.92	0.93	0.92
금속 제품	-0.04	0.04	0.28	0.18	-0.13
일반 기계	0.87	0.83	0.73	0.73	0.66
정밀 기계	0.38	0.40	0.29	0.45	0.32
전자 기계	0.81	0.89	0.93	0.84	0.69
수송 장비	0.97	0.99	0.99	0.99	1.00
기타 수송 장비	-0.79	0.08	0.74	-0.28	-0.08
기타 제조업	0.40	0.48	0.63	0.61	0.49
합 계	-0.41	-0.24	-0.17	-0.14	-0.18

보다 세분화된 품목군에서 수출특화·수입특화 상태를 살펴보면, 한국의 대뉴질랜드 TSI 지수는 (-)이지만, TSI가 0 이상인 세부상품군의 숫자가 0 이하인 세부상품군의 숫자의 두 배 가까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06년의 경우 전체 708개 상품군 중에서 TSI가 0 이상인 산업은 484개, 0 이하인 산업은 224개로 나타났다.

■ 표 III-13. 세부산업별 TSI 지수 분포 현황 ■

산 업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차 상품	TSI>0	6	8	9	8	16
	TSI<0	43	38	40	40	32
가공된 1차 상품	TSI>0	18	18	24	22	23
	TSI<0	31	36	28	31	30
가공된 광물제품	TSI>0	15	13	13	16	16
	TSI<0	5	5	5	10	8
화학/고무제품	TSI>0	83	86	80	83	82
	TSI<0	36	31	32	32	36
가죽제품	TSI>0	4	3	3	5	4
	TSI<0	11	11	11	10	8
목재/제지	TSI>0	20	22	22	20	22
	TSI<0	19	17	20	19	19
섬유/의류	TSI>0	83	89	88	90	78
	TSI<0	19	16	17	11	23
비금속 광물제품	TSI>0	20	18	18	21	20
	TSI<0	9	9	5	8	11
금속제품	TSI>0	73	69	72	72	73
	TSI<0	12	12	11	15	14
일반기계	TSI>0	58	53	52	53	58
	TSI<0	10	11	10	14	11
정밀기계	TSI>0	24	23	22	20	21
	TSI<0	10	9	9	11	9
전자기계	TSI>0	32	33	30	30	33
	TSI<0	12	10	10	11	9
수송 장비	TSI>0	8	7	8	8	9
	TSI<0	1	1	1	1	1
기타 수송 장비	TSI>0	2	2	4	2	3
	TSI<0	3	3	1	4	1
기타 제조업	TSI>0	29	29	29	29	26
	TSI<0	7	8	6	5	12
합 계	TSI>0	475	473	474	479	484
	TSI<0	228	217	206	222	224
	합 계	703	690	680	701	708

주: 총 숫자는 특정 연도에 거래되지 않은 품목으로 인해 각각 다름.

TSI 지수 분포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대분류로 본 산업의 TSI는 (-)이며 2002~2006년간 TSI 지수 값에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세분화된 분류(HS Code 4단위 기준)의 경우 TSI가 0 이상인 1차 산업과 가공된 1차 산업 산업의 숫자가 2002년에서 2006년 각각 6개에서 16개로, 18개에서 23개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수산물(0303, 0305, 0307), 커피·차류(0901, 0902), 곡물가공 제품(1902, 1904, 1905), 음료·주류(2201, 2202, 2203, 2206) 등이 2006년 기준 1에 가까운 TSI 값을 보이고 있다.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일부 특화산업에서는 거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III-14. 농산물의 대뉴질랜드 TSI 지수 ■

산 업	HS 4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차 산업	0303	0.73	0.76	0.71	0.72	0.68
	0305	0.45	0.72	-0.17	1.00	1.00
	0307	0.81	0.98	0.95	0.95	0.93
	0813	-1.00	-1.00	0.93	-1.00	1.00
	0901	-1.00	-0.26	-1.00	0.18	1.00
	0902	1.00	1.00	1.00	0.87	0.98
가공된 1차 산업	1211	-0.28	-0.18	-0.77	0.85	0.87
	1212	0.91	0.81	0.90	0.94	0.88
	1803	1.00	1.00	1.00	1.00	1.00
	1902	1.00	1.00	1.00	1.00	1.00
	1904	1.00	1.00	0.98	0.92	0.99
	1905	-0.09	-0.02	0.41	0.96	1.00
	2001	1.00	0.97	0.86	0.97	1.00
	2007	-1.00	-1.00	-1.00	-1.00	0.94
	2101	1.00	0.49	0.75	0.92	0.99
	2201	1.00	1.00	0.41	0.40	1.00
	2202	0.83	-0.07	0.55	0.83	0.91
	2203	1.00	1.00	1.00	0.81	0.90
	2206	1.00	1.00	0.47	1.00	0.88
	2402	1.00	1.00	1.00	1.00	1.00

다. 수출경합도 지수(ESI: Export Similarity Index)

수출경합도 지수는 양국의 수출구조가 유사할수록 경쟁관계가 치열하다는 가정하에 특정 시장에서 양국간의 경쟁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써, 양국의 수출에서 각각의 상품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값을 합산하여 지수화한다. 따라서 수출구조가 100% 동일할 경우에는 값이 1로 나타나며, 반대로 0이 되면 수출구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ESI를 계산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다.

$$\sum_{k=1}^n MIN\left(\frac{X_{iw}^k}{X_{iw}}, \frac{X_{jw}^k}{X_{jw}}\right), (X_{iw}^k, X_{jw}^k : i, j\text{국의 } k\text{산업 수출}, X_{iw}, X_{jw} : \text{양국의 총수출})$$

한국과 뉴질랜드의 전 산업 ESI는 0.17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과 뉴질랜드의 수출구조가 유사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경합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ESI 값이 가장 높았던 2003년 0.1733에서 2005년 0.1646으로 ESI 값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양국의 수출경합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산업별 ESI 값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ESI값이 낮게 나와 경합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화학·고무제품, 금속 제품, 일반기계, 전자기계 산업 등은 ESI 값이 0.02 이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ESI 분석의 결과 일반기계 산업과 전자기계 산업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앞장의 분석에서 이들 산업의 대뉴질랜드 TSI 값이 감소 추세에 있었지만, ESI 지수 값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즉 뉴질랜드의 동 산업 경쟁력이 점차 확보되면서 세계시장 수출을 늘려가고 있으며, 경합도도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III-15. 한국·뉴질랜드 수출경합도

산 업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차 산품	0.0059	0.0048	0.0043	0.0037
가공된 1차 산품	0.0077	0.0072	0.0067	0.0063
가공된 광물 제품	0.0026	0.0017	0.0017	0.0029
화학/고무제품	0.0208	0.0208	0.0204	0.0202
가죽제품	0.0035	0.0030	0.0027	0.0019
목재/제지	0.0077	0.0061	0.0059	0.0060
섬유/의류	0.0125	0.0122	0.0113	0.0093
비금속 광물 제품	0.0092	0.0116	0.0113	0.0036
금속 제품	0.0201	0.0217	0.0242	0.0245
일반 기계	0.0320	0.0341	0.0349	0.0386
정밀 기계	0.0055	0.0058	0.0055	0.0058
전자 기계	0.0234	0.0246	0.0283	0.0277
수송 장비	0.0097	0.0101	0.0090	0.0090
기타 수송 장비	0.0021	0.0060	0.0016	0.0015
기타 제조업	0.0038	0.0035	0.0034	0.0035
합 계	0.1665	0.1733	0.1712	0.1646

라. 무역집중도 지수(TII: Trade Intensity Index)

양국 무역관계를 보다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통상적으로 TII 지수를 사용한다. TII 지수는 한 국가가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중요성)과 비교할 때 양국의 무역거래 규모가 큰지, 작은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 지수는 상대국에 대한 수출 비중을 상대국에 대한 세계 전체 수출 비중(상대국이 수입하는 비중)으로 나누어 구한다. 지수의 값이 1보다 클 경우에는 상대국의 대(對)세계 수입에 비해 자국이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1 이하일 경우에는 수출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TII = \frac{X_{ij}^k / X_{iw}}{X_{wj}^k / X_{ww}}, (X_{ij}^k, X_{wj}^k \text{ } i\text{국 } K\text{산업의 } j\text{국 수출, 세계의 } j\text{국 수출, } X_{iw}, X_{ww} \text{ } i\text{국의 } j\text{국 수출총액, 세계의 } j\text{국 수출총액})$$

한국의 대뉴질랜드 TII는 모든 산업에서 1보다 작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대뉴질랜드 수출이 다른 국가와의 교역에 비해 활발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뉴질랜드의 대(對)한국 TII는 1보다 크지만, 2002년 1.97에서 2005년 1.48로 감소 추세에 있다.

각각의 산업군을 살펴보면 한국의 대뉴질랜드 수출은 1차 산업, 금속제품, 전자기계 산업의 무역집중도가 높고, 뉴질랜드의 대(對)한국 수출은 1차 산업, 가공된 1차 산업, 가죽제품 및 목재·제지 산업에서 무역집중도가 높게 나타난다. 특히 뉴질랜드 1차 산업의 대(對)한국 TII는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뉴질랜드가 1차 산업의 수출을 한국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의 수송 장비 산업 TII가 급증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 1에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뉴질랜드 자동차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6. 한국과 뉴질랜드의 산업별 대(對)상대국 TI 지수

산 업	한국→뉴질랜드				뉴질랜드→한국			
	2002	2003	2004	2005	2002	2003	2004	2005
1차 산품	1.65	2.35	2.98	3.13	8.58	10.49	16.22	19.77
가공된 1차 산품	0.33	0.33	0.29	0.26	3.67	3.49	4.06	5.17
가공된 광물제품	0.86	1.14	2.13	0.75	0.10	0.02	0.04	0.01
화학/고무제품	0.90	0.97	1.01	0.84	3.37	1.41	1.72	0.74
가죽제품	0.13	0.14	0.12	0.12	17.45	16.26	13.93	7.57
목재/제지	0.51	0.51	0.67	0.62	31.83	33.14	32.54	31.71
섬유/의류	0.88	0.93	0.75	0.63	0.23	0.26	0.21	0.39
비금속 광물제품	0.42	0.35	0.32	0.31	0.03	0.03	0.01	0.01
금속제품	1.95	2.02	2.27	2.02	1.57	1.38	0.85	0.94
일반기계	0.76	0.61	0.62	0.63	0.07	0.08	0.15	0.16
정밀기계	0.14	0.13	0.14	0.12	0.05	0.05	0.06	0.04
전자기계	1.24	1.55	1.71	1.67	0.06	0.05	0.04	0.09
수송 장비	0.28	0.41	0.41	0.82	0.05	0.03	0.03	0.03
기타 수송 장비	0.01	0.01	0.01	0.02	0.38	0.06	0.01	0.21
기타 제조업	0.23	0.19	0.15	0.14	0.28	0.23	0.13	0.15
합 계	0.75	0.83	0.96	0.85	1.97	1.66	1.62	1.48

마.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뉴질랜드는 산업경쟁력과 교역에서 상호 보완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뉴질랜드에 비해 일반기계, 정밀기계, 전자기계, 수송 장비 및 기타 수송 장비 품목에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1차 산품 및 가공된 1차 산품, 목재/제지 품목에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이한 경제·산업 구조를 지니고 있는 한국과 뉴질랜드가 상호 보완적 교역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경우 APEC 국가 중, 한국과 수출입에서의 보완성이 가장 뛰어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아래의 표에 나와 있듯이 한국의 APEC 11개 국가 중 뉴질랜드는 수출에서 65%의 보완성을 그리고 수입에서는 74%의 보완성

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수출입 모두에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보완성을 보여주고 있다.

■ 표 III-17. 한국과의 수출입 보완성 지수 ■

	수출 보완성	수입 보완성
호주	62%	55%
칠레	58%	46%
중국	62%	55%
인도네시아	56%	53%
일본	60%	63%
말레이시아	59%	56%
멕시코	60%	59%
필리핀	56%	49%
싱가포르	58%	57%
태국	62%	58%
뉴질랜드	65%	74%

자료: 뉴질랜드 경제연구원 (NZIER)

양국이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한국과 뉴질랜드가 자국이 지니고 있는 비교우위 부문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FTA와 같은 경제 협정 혹은 협력을 통한 양국의 교역 확대는 자국이 지닌 비교우위를 활용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반면에 자국이 비교열위에 있는 부문에서의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원론적인 이야기로 양국의 교역확대 혹은 FTA가 불러올 경제적 이득과 충격은 여러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 1절의 한·뉴질랜드 FTA 추진에서 살펴보고 있다.

제4장

한국의 대뉴질랜드 통상전략

1. 한·뉴질랜드 FTA 추진

한국과 뉴질랜드는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에서 한·뉴질랜드 FTA에 대한 양국 민간기관의 타당성 조사에 합의하였다. 뉴질랜드는 한국 최초의 FTA 체결 대상국인 칠레에 앞서 한국의 첫 번째 FTA 체결국이 될 수도 있었으나, 양국 민간공동연구에 참여한 뉴질랜드경제연구원(NZIER: New Zealan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이 한·뉴질랜드 FTA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와 교역 확대가 양국에 새로운 계기와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한 반면,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다소 미온적인 견해를 피력함에 따라 FTA 추진에 대한 합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이후에도 뉴질랜드는 지속적으로 한·뉴질랜드 FTA 추진 의사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정부에 전달해 왔다. 특히 뉴질랜드는 미국과 FTA 추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일본 역시 뉴질랜드와의 FTA 체결에 대하여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수출국인 한국과의 FTA 체결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은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할 경우 국내 농업부문(특히 쇠고기와 낙농제품, 일부 과실류)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과, 뉴질랜드가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이 아니라는 점으로 인해 FTA 추진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지난 2004년 12월부터 시작한 중국·뉴질랜드 FTA 협상의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한국이 ASEAN, 미국과 FTA를 이미 발효 혹은 타결하였으며, EU와의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뉴질랜드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제품들과 뉴질랜드 시장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중국 제품의 뉴질랜드 시장 선점효과를 억제하고, 중국의 뉴질랜드 및 주변 대양주 지역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한다는 점에서, 뉴질랜드와의 FTA 추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절에서는 중·뉴질랜드 FTA가 타결될 경우 중·뉴질랜드 FTA가 한국 수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 추진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중·뉴질랜드 FTA 추진 동향

2003년 10월 뉴질랜드를 방문한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헬렌 클락 뉴질랜드 수상은 중국과 뉴질랜드 양국간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TECF)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04년 5월 보시라이 중국 상무부장과 짐 서튼 뉴질랜드 통상장관은 중국·뉴질랜드 FTA 공동연구의 근거가 담긴 TECF를 체결하고 FTA 공동연구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6개월여 후인 2004년 11월 19일 양국 정상은 칠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뉴질랜드·중국 FTA의 협상 범위는 상품(관세/비관세 장벽의 제거), 서비스

스, 투자뿐만 아니라, 원산지, 무역구제, 위생·검역, 기술무역장벽,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세관협력 등도 포함하고 있으며, 양국은 노동·환경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국은 2007년 10월 현재까지 14차례의 FTA 협상을 개최한 상태이나, 상품 및 투자·서비스 분야에서 가시적인 합의결과는 도출되지 않고 있다. 양국은 현재 2008년 4월을 목표(2006년 4월 원자바오 총리 방문 시 1~2년 내 협상을 종결하기로 합의)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타임 스케줄은 2007년 APEC 정상회담 기간 중 양국 상무장관 배석하에 이루어진 양자 정상회담(후진타오 주석과 클라크 수상)에서 재확인되었다.

■ 표 IV-1. 중국·뉴질랜드 FTA 추진경과 ■

일 시	내 용
2003. 10.	China-New Zealand trade framework agreement 협상 개시
2004. 5. 28	China-New Zealand trade framework agreement 서명 중국·뉴질랜드 FTA 공동연구 시작
2004. 11. 20	FTA 공동연구보고서 발간
2004. 12. 7	제1차 중국·뉴질랜드 FTA 협상
2007. 8. 31	제14차 중국·뉴질랜드 FTA 협상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및 각종 자료를 토대로 저자 정리.

뉴질랜드는 최근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방 국가로, 선진국 중에서 중국과의 WTO 가입 협상에 최초로 서명하였다. TECF에는 당시 중국정부가 중요시하던 중국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써 뉴질랜드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한 최초의 선진국이 되었다. 이와 같은 우호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중국·뉴질랜드 FTA 협상이 추진되었으며, 중국과 FTA 협상을 시작한 최초의 선진국도 뉴질랜드가 되었다. 최근 중국과 호주가 FTA 협상을 개시하여 경쟁관계에 놓여있기는

하지만, 협상이 조기에 마무리된다면 뉴질랜드는 중국과 FTA를 체결하는 최초의 선진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 한국 상품의 대뉴질랜드 수출 및 중국과의 경합 현황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의 교역규모는 1997년 이후 10억 달러 내외에서 정체를 보였으나, 2004년 이후 15억 달러 내외로 급증하였다. 수출규모는 1997년 2억 8,300만 달러에서 2006년 7억 7,800만 달러로 꾸준한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자동차와 석유제품의 수출신장이 두드러지지만, 중국과 경합하는 전기제품, 범용부품, 섬유제품의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의 뉴질랜드 수입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은 3% 이하에서 정체된 상태이다.

양국의 100대 수출품목(HS 6단위 기준)을 살펴보면, 이 중 중복되는 품목은 15개 품목으로 그리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한국의 100번째 수출품목인 염화비닐수지(74만 3,000달러)의 수출액보다 금액이 큰 중국의 대뉴질랜드 수출품목과 한국의 100대 수출품목이 겹치는 품목은 무려 38개에 달한다.⁹⁾ 우리나라의 대뉴질랜드 100대 수출품목 중 중국의 대뉴질랜드 100대 수출품목과 경합하는 품목은 총 15개 품목¹⁰⁾으로 광물성 연료, 화학공업 생산품, 고무, 철강제품 등이 있으며, 그 중 기계류와 전기기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양국 모두 70만 달러 이상(우리나라의 대뉴질랜드 100번째 수출품이 74만 3,000달러임을 고려) 수출하는 품목은 38개 품목¹¹⁾에 이

9) 중국의 수출금액이 우리보다 4배 이상 크기 때문에 단순히 100대 수출품목을 비교하는 것은 해당시장 경합도를 분석하는 측면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뉴질랜드 100대 수출품목 중 100번째 품목의 수출액 이상을 수출하는 중국의 수출품목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10) HS 6단위: 271019, 852520, 852812, 381700, 401110, 510710, 760612, 401120, 852190, 848180, 851790, 731700, 842211, 851650, 847130

11) HS 6단위: 842952, 481019, 030749, 390311, 842720, 841810, 382490, 843149, 760711, 190230, 852990, 870899, 282550, 871120, 741110, 842810, 870190, 721933, 392410, 392020, 841510, 847989, 210690

르며, 경합하는 38개 품목 중 중국의 대뉴질랜드 수출이 한국의 수출보다 많은 품목은 20개 품목에 이른다. 참고로 중국이 7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품목은 무려 418개(우리나라의 약 4배)에 달한다. 또한 경합하는 38개 품목 중 6개 품목(HS 6단위: 852520, 510710, 760612, 190230, 870899, 854411)은 중국의 대뉴질랜드 수출액과 한국의 수출액 대비 격차가 30% 이내로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 제품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중·뉴질랜드 FTA가 한국의 대뉴질랜드 수출에 미치는 영향

중국·뉴질랜드 FTA 체결 시 우리 상품의 대뉴질랜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가 최근 들어 체결한 FTA의 상품관세 양허 자료가 존재해야 하나, 현재로서는 참고할 자료가 없는 상태이다.¹²⁾ 따라서 분석의 편의상 중국·뉴질랜드 FTA가 2008년 7월 이후에 발효되며, 전 품목 관세율이 0으로 적용된다는 가정하에 살펴보도록 한다.

뉴질랜드는 평균관세율이 2003년 말 현재 3.6%로 관세율이 매우 낮은 국가이다. 뉴질랜드의 관세율은 'Post-2005 Tariff Review 계획' (2003년 9월 30일 발표)에 따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으로, 해당 연도 7월에 새로운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2009년 7월까지 최종적으로 0%, 5%, 10%의 관세율 체계를 적용할 계획으로, 2005년 기준 현행 관세율이 12.5%에서 5%인 품목은 5%로 인하할 계획이며, 의류, 신발, 카펫, 자동차 등 현행 최고관세율(17~19%)을 적용하는 품목은 10%로 인하할 계획에 있다. 다만 현행 관세율이 5% 이하인 품목에 대

12) 현재까지 뉴질랜드가 맺은 지역 경제협력 협정으로는 1983년 호주와 맺은 Closer Economic Relations Agreement(1966년 체결한 양국간 FTA를 대체), 2005년 체결(2006년 5월 발효)한 칠레·브루나이·싱가포르(2001년에 CEP를 이미 체결)·뉴질랜드 4개국 간의 노동협력과 환경협력협정을 포함한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Trans-Pacific SEP), 2005년 4월 태국과 협정에 서명하고 2005년 7월부터 발효된 자유무역과 투자에 관한 Closer Economic Partnership 협정이 있음. 그리고 최근 들어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GCC, ASEAN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추진을 검토하고 있음.

해서는 현행 관세율을 유지할 예정이다.

표 IV-2. 뉴질랜드의 관세율 조정계획

(단위: %)

현행 관세율	2006년 7월~	2007년 7월~	2008년 7월~	2009년 7월~
17~19.0%	17	15	12.5	10
10~12.5%	10	7.5	5	5
5~ 7.5%	5~7.5	5~7.5	5	5

자료: "A Joint Study Report on A FTA Between China and New Zealand"(2004,11).

표 IV-3. 평균관세율 추이

(단위: %)

연 도	1988	1993	1996	2000	2001	2002	2003
평균관세율	14.30	8.50	5.70	3.70	3.70	3.70	3.60

자료: "A Joint Study Report on A FTA Between China and New Zealand"(2004,11).

우리나라의 대뉴질랜드 100대 수출품목(HS 6단위 기준) 중 2008년 7월 이후 적용될 관세율이 0%인 품목은 53개 품목, 관세율이 5%인 품목은 39개 품목, 관세율이 2008년 12.5%에서 2009년 10%로 인하될 품목은 8개 품목이다. 중국과의 경합품목(38개 품목) 중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총 18개 품목¹³⁾으로 주로 자동차, 기계류, 기계부품, 철강·화학 등의 소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자동차(완성차)나 화학제품의 대중(對中) 경합도는 낮지만, 기계류, 기계부품(자동차부품 등 주로 범용부품)의 대중 경합도는 높은 편이다. 따라서 2008년 12.5%가 부과되는 품목에서는 자동차

13) HS 6단위: 842952, 401110, 842720, 510710, 760612, 841810, 401120, 843149, 760711, 190230, 852990, 870899, 842211, 842810, 392020, 841510, 847989, 210690

용 축전지(HS 8507), 고무타이어(HS 4011)의 급격한 가격경쟁력 악화가 예상되며, 5%의 관세가 부과될 기계류와 전자·자동차 부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이 예상된다. 또한 우리의 수출액 대비 격차가 30% 이내로 중국이 추격하는 품목들의 뉴질랜드 관세율 계획을 살펴보면, 핸드폰(HS 852520)을 제외한 5개 품목(HS 6단위: 510710, 760612, 190230, 870899, 854411)이 5%로, 중국·뉴질랜드 FTA의 영향으로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표 IV-4. 중국·뉴질랜드 FTA에 따른 한·중 품목간 관세격차 ■

구 분	품목수	주요 해당품목
10% 격차 발생	8개	자동차, 자동차용 축전지(باتเตอรี่), 고무 타이어(자가용)
5% 격차 발생	39개	건설기계(불도저 등), 작업용 트럭, 작업용 기계, 알루미늄 제품, 고무 타이어(버스용), 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 전기제품의 부품, 자동차부품, 파스타, 커피제품, 신문용지, 선반 등 공작기계, 에어컨·식기세척기 등 고급전자제품 등
격차 발생 없음	53개	석유제품, 컬러 TV, 휴대폰, 컴퓨터, 전자레인지, 수산물, 섬유제품, 기초소재, 생활용품 등

자료: 저자 정리.

하지만 이와 같은 분석은 2006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뉴질랜드 FTA 체결의 영향이 다소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예로서 신문용지의 경우, 2006년 중국의 대뉴질랜드 수출이 불과 3만 2,000달러에 그쳤으나, 2007년 1~4월간 수출금액이 무려 284만 4,000달러로 한국의 2006년 대뉴질랜드 수출액인 110만 5,000달러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철강 평판압연제품(HS 721049)도 중국의 대뉴질랜드 수출이 2006년 64만 8,000달러에서 금년 1~4월까지 수출이 105만 1,000달러로 폭발적인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뉴질랜드 FTA 체결에 따른 영향은 현재 경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뿐만이 아니라, 향후 뉴질랜드가 0% 이상의 관세율을 부과할 47개 전 품목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분석일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분석에서 예외되는 품목은 자동차이나, 소형차 부문의 경우 중국 메이커가 수출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낙관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나. 한·뉴질랜드 FTA 추진

중국·뉴질랜드 FTA는 본격적인 아시아·대양주 시장 확보 전쟁의 신호탄이다. 양국간 FTA는 중국이 자국 시장을 뛰어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단계 통상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은 ASEAN,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과 FTA 협상을 추진하거나 체결하는 등 아시아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그에 따라 한·중·일 간의 ASEAN 내 영향력 확대 경쟁(ASEAN+3, EAS 창설, ASEAN과 경쟁적 FTA 추진 등)에 이어서, 본격적인 아시아·대양주 시장 확보 전쟁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양주 경제권과의 FTA 체결 등 포괄적 경제협력 관계 제고를 위한 신속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의 입장에서 뉴질랜드와의 FTA 추진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농업부문에 대한 민감성이다. 세계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뉴질랜드 농축산업 부문은 이전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에 비해 높은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에도 많은 쇠고기와 낙농제품이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FTA를 통해 뉴질랜드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뉴질랜드 농산물의 한국 유입이 늘어남으로써 한국 농업부문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은 한국이 뉴질랜드와의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망설이는 이유가 되고 있다.

하지만 뉴질랜드 농축산물 수입에 대한 우려는 몇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

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뉴질랜드의 경우 한국이 농산물 중에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쌀 생산국이 아니며 또한 고추, 양파, 파, 마늘과 같은 농작물의 주요 생산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이 이미 FTA를 체결한 ASEAN이나 미국에 비해 농업부문 협상이 예상보다 합의점을 찾기 쉬울 수 있다.

둘째로 비록 쌀, 고추, 양파, 마늘과 같은 농산물의 주요 생산국이 되지는 않지만, 뉴질랜드는 여전히 쇠고기와 낙농제품, 그리고 일부 과실류에서 한국 농업부문에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한·미 FTA 체결과 EU, 캐나다와의 FTA 추진은 뉴질랜드산 수입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피해를 완화시키는 완충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쇠고기의 경우 한·미 FTA에서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하여 15년에 걸친 점진적인 관세인하를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질랜드와의 FTA를 통한 쇠고기 관세 인하는 국내 한우 농가보다는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미국이나 호주산 쇠고기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뉴질랜드 쇠고기에 대한 관세철폐는 미국의 국내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할 수 있다는 파생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사과를 비롯한 과실류의 경우, 한국과 반대되는 계절적 차이를 이용하여 한·칠레 FTA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절 관세를 이용한다면 한국 농업부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뉴질랜드 농업부문의 국제적 경쟁력에 대하여 우려하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농업 진출과 기술협력을 통해 한국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¹⁴⁾

농업부문에 대한 민감성과 함께 뉴질랜드의 작은 경제규모는 한국이 뉴질랜드와의 FTA를 서두르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400만이라는 인구는 한국에게 크게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는 없다. 이미 한국과 ASEAN

14) 농업 진출과 협력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고 있음.

간의 FTA가 발효되었고¹⁵⁾ 미국과의 FTA도 비준·발효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또한 한·EU FTA 협상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중국과도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멀지 않은 시기에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양자간 FTA 협상이 중단된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은 이미 한국의 5대 교역국/지역과의 FTA를 체결하거나 FTA 체결을 위한 양자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5대 교역국/지역과의 FTA는 상품교역 확대라는 동기가 많이 작용하였고, 국가적 관심도 과연 이들과의 FTA를 통해 한국의 수출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뉴질랜드와의 FTA를 한국의 5대 교역국/지역과의 FTA 추진 동기와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한다면 뉴질랜드는 크게 매력적인 국가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미국, 중국, ASEAN, EU 등 주요 교역 대상국을 제외하고는 교역확대라는 동기가 한국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국가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뉴질랜드와의 FTA는 기존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미 언급한 농업부문 진출과 기술협력 강화도 한국이 고려해야할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며, 인적교류 확대나 외교·안보협력 강화와 같은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접근과 평가가 요구된다.

2. 한·뉴질랜드 협력 강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뉴질랜드의 경제규모는 한국이 교역규모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높은 1인당 국민소득과 안정적이고 투명한 경제·사회구조를 지닌 선진국이라는 점은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400만에 불과한 뉴질랜드 인구는 뉴질랜드 시장규모를 제한

15) 한·ASEAN FTA 상품협정은 2007년 6월1일에 발효됨.

하는 요인이 된다. 경제적 이익이 통상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한국의 대뉴질랜드 통상전략은 뉴질랜드가 지니고 있는 비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뉴질랜드는 한국이 보유하지 못한 농업·임업·낙농업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높은 외교적 명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대뉴질랜드 통상전략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뉴질랜드의 비교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가. 농업부문 진출 및 기술협력

2004년 말 우리나라의 총 경지면적은 183만 5,600헥타르로 10년 전인 1994년의 203만 3,000헥타르에 비해 9.7% 감소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은 2006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쌀 자급률이 2005년 101.7%에서 2015년에는 90.2~96.7%로 낮아지며, 육류 자급률은 2004년 79.3%에서 2015년에 73.9%로, 우유류는 같은 기간 72.4%에서 65.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채소류와 과일류의 경우 2004년도에 각각 94.3%와 85.2% 자급률에서 2015년에는 85.7~88.0%와 66.3~67.8%로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육류 중에서 쇠고기만이 2015년에 2004년 대비 약 1.9% 증가한 46.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른 수입물량의 추가적인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쇠고기 자급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 표 IV-5. 품목별 식량자급률 전망 ■

품 목	2004년*	2015년**
쌀	101.7	90.2~96.7
주식용 곡물	65.3	54.2~56.7
사료포함 곡물	26.8	29.1~31.6
육류	79.3	73.9
쇠고기	44.2	46.1
돼지고기	86.0	81.6
닭고기	90.6	90.5
우유류	72.4	65.3
채소류	94.3	85.7~88.0
과일류	85.2	66.3~67.8

주: * 쌀과 우유류의 경우 2005년도 자급률.

** 2015년 자급률 예상치는 품목별로 시나리오에 따라 다수의 추정치를 제공한 경우가 있으며 동 보고서에서는 시나리오에 따른 범위를 명기함.

자료: 최지현 외(2006)에서 정리.

식량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은 국가의 필수적인 생존 조건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미래 식량 수급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전쟁의 실탄에 해당하는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좁은 영토에 많은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 농지를 늘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식량 생산에 있어 우리나라가 지니지 못한 비교우위를 지닌 국가로 진출하여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뉴질랜드는 한국 농업부문의 투자 진출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뉴질랜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농업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국가이다. 1980년대 경제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하면서 오늘

날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총생산 대비 생산자 지원 비율(PSE: Producer Subsidy Estimate)을 유지하면서도 국제 농산물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지닌 국가로 발돋움 하였다. 2004년도 한국의 총생산 대비 생산자 지원 비율이 무려 63%에 달했던 것에 반해 뉴질랜드의 생산자 지원 비율은 2.7%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생산자 지원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뉴질랜드 농산물은 세계시장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주변 환경과 기술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대뉴질랜드 투자 중, 농림축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전체 투자의 45%를 넘어서고 있다. 20건의 프로젝트에 약 1억 2,000만 달러가 투자되었다. 그러나 진출분야는 주로 임업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뉴질랜드가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낙농업이나 축산, 그리고 과수농장 같은 부문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부 한국 교민을 중심으로 농업부문에 대한 소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뉴질랜드 국내시장이나 녹용과 같은 몇몇 특수 품목에 한정되고 있다.

뉴질랜드 제스프리스사(社)의 제주도 참다래 생산 기술 협력사업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뉴질랜드와의 농업부문 진출 및 기술협력은 한국 농업에 뉴질랜드의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농업부문의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2007년 4월에 한국과 뉴질랜드는 한·뉴 농업협력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농업부문 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는 국내 농업 환경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함께 한국 개인 및 기업들의 직접 진출 확대는 식량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식량 자급률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외교적 협력 강화

뉴질랜드는 한국이 1948년 정부를 수립한 이래 지속적으로 한국정부에 대한 우호적인 외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한국전쟁에서 자국 군대 규모가 1만 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6,000명에 이르는 육군과 해군 병력을 파병하여 한국을 도왔고 1962년 한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¹⁶⁾ 이후 무역·경제·기술협력 협정, 어업협정, 항공협정 등을 체결하였고, 1990년대 초 뉴질랜드의 한국 등 아시아 이민문화 개방과 1993년 11월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직항로가 개설되면서 민간 차원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뉴질랜드는 경제규모는 작지만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명성을 지닌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높은 생활수준, 발전된 경제, 그리고 굳건한 안보는 뉴질랜드가 주 세력국가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원조와 발전, 군축, 환경과 같은 문제에서 미들파워(middle power) 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1980년대에 뉴질랜드가 핵무기에 대하여 강력한 정책을 폈던 것은 뉴질랜드 미들파워 외교의 좋은 예가 된다.

1980년대에 뉴질랜드는 핵을 동력으로 한 함선의 자국 영해 진입 및 통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핵무기를 지닌 미군 함선의 방문도 포함이 된 것으로, 미국 함선이 뉴질랜드를 방문하기 전에 핵무기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보장을 해야만 뉴질랜드 영해 진입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였다. 이에 미국은 뉴질랜드와의 안보협력 중단을 발표하였고 뉴질랜드는 미국이 참석한 훈련에 참석을 중단하였다. 또한 뉴질랜드가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그 결과로 미국은 정치·외교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호주와는 달리 현재까지 뉴질랜드와의 FTA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16) 북한과도 지난 2001년 3월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뉴질랜드의 미들파워 외교는 단기적으로 주 세력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과 반목을 불러와 외교 이외의 부문으로 영향이 미치기도 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뉴질랜드의 윤리 외교(moral diplomacy)가 국제적 지지를 받고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명성과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또한 뉴질랜드는 이러한 명성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미들파워 협력(middle power alliance)을 구성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대양주에 위치한 다른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한국은 북한과의 대립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독자적으로 미들파워 외교를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즉 뉴질랜드의 경우 안정된 사회기반과 특히 ‘확고한 안보’를 기반으로 자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표명할 수 있었으나, 남북 대립이라는 특수성과 주변국들의 남북한에 대한 이해관계가 엇갈린 상황에서 한국이 뉴질랜드와 같이 독자적으로 미들파워 외교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은 뉴질랜드와 긴밀한 외교관계를 구축하여 뉴질랜드의 외교적 명성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적 방향을 지지하는 여론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미들파워 협력 구성의 축으로 등장하기보다는 참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여론을 형성해가는 데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뉴질랜드와 농업 보조금이나 농업부문 개방과 같은 문제에서 외교적으로 동일한 노선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PEC,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등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접촉이 있는 곳에서 양자간 기본적으로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는 부분에 대해 상호간에 의견을 조율하여 외교적 공동노선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대북한 정책에 대한 국제 여론의 뒷받침이나 남태평양 도서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는 뉴질랜드와의 외교적 협력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이전 절에서 언급한 한·뉴질랜드 FTA도 ‘외교협력 강화’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뉴질랜드는 한국이 체결한 한·칠레 FTA로 인해 키워을 비롯한 일부 과실류의 한국 수출이 이미 줄어들고 있으며, 한·미 FTA 타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한국 시장에서 뉴질랜드산 쇠고기 판매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뉴질랜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캐나다 FTA와 한·EU FTA가 타결될 경우, 뉴질랜드의 주요 수출품목인 목재류와 낙농제품의 한국 시장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국과의 FTA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뉴질랜드에 대해 “한국 시장에서 뉴질랜드산 제품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양자간 FTA 추진을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양국 외교관계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인적교류 확대

1990년대 초부터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한 한국의 뉴질랜드 이민은 2006년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총 3만 792명의 한국 이민이 뉴질랜드에 정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아시아인 중 중국과 인도에 이어 3위에 해당하는 순위로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약 0.8%에 해당되며 주로 소규모 생계형 투자 이민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민의 약 80% 가량이 뉴질랜드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 및 주변지역에 거주하면서 식품, 음식점, 관광업, 모텔 등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농장 경영이나 간호사, 목수, 정비사 등 뉴질랜드 내 인력 부족을 채울 수 있는 업종의 진출이 두드러진다.

표 VI-6. 뉴질랜드 인구센서스(인종별 인구 추이)

(단위: 명)

구 분	1991	1996	2001	2006	2006/2001
총 인구	3,373,926	3,618,303	3,737,277	4,027,947	7.8%
유럽인	2,783,028	2,879,085	2,871,432	2,609,589	-9.1%
－ 뉴질랜드인	2,618,445	2,496,552	2,696,724	2,381,076	-11.7%
마오리인	434,847	523,374	526,281	565,329	7.4%
폴리네시아인	167,070	202,233	231,801	265,974	14.7%
아시아인	99,756	173,502	238,179	354,552	48.9%
－ 중국	44,136	78,663	100,680	139,728	38.8%
－ 인도	29,823	40,401	60,210	97,443	61.8%
－ 한국	930	12,753	19,026	30,792	61.8%
－ 필리핀	4,920	8,190	11,091	16,938	52.7%
－ 일본	2,970	7,458	10,023	11,910	18.8%
중동/미주/아프리카	6,330	15,288	24,084	34,746	44.3%
기타(재분류 포함)	267	516	804	430,881 (429,429)	n/a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Statistics New Zealand).

또한 뉴질랜드는 세계적으로 유학생들이 많은 아시아 지역과 인접한 영어권 국가로,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 저렴한 유학비용을 강점으로 정부 차원에서 교육서비스의 수출(유학생의 유치)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 유학생의 국가별 비중(2006년 기준)에서 뉴질랜드는 한국 전체 유학생의 4.7%를 차지하여 8위를 기록하고 있다.

표 IV-7. 우리나라의 해외 유학생 국가별 비중

(단위: 명, %)

연 도	미국	중국	영국	호주	일본	캐나다	필리핀	뉴질랜드	기타	계
2005	57,896	28,408	20,100	15,176	19,022	11,400	8,600	10,306	21,346	192,254
비율	30.1	14.8	10.5	7.9	9.9	5.9	4.5	5.4	11.0	100.0
2006	57,940	29,102	18,845	16,856	15,158	12,570	9,500	8,882	21,511	190,364
비율	30.4	15.3	9.9	8.9	8.0	6.6	5.0	4.7	11.2	100.0

주: 각 연도의 4월 1일자 기준임.

자료: 교육부, 2006년도 국외 한국인 유학생 현황.

뉴질랜드의 입장에서 한국은 중국에 이어 전체 학생비자 발급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때 2만 명에 이르던 한국 유학생의 수는 뉴질랜드 달러의 평가절상의 영향으로 1만 2,000여 명으로 줄었다가 2006/07년에 1만 4,000여 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이는 뉴질랜드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20%에 해당하는 수치로, 한국은 뉴질랜드 교육서비스 수출의 주요 고객이 되고 있다.

■ 표 IV-8. 뉴질랜드의 학생 비자 발급 추이 ■

(단위: 명)

국 가	02. 7~03. 6	03. 7~04. 6	04. 7~05. 6	05. 7~06. 6	06. 7~07. 6. 22
총 계	98,892	100,896	86,234	75,871	69,966
중 국(1위)	58,396	64,347	52,060	43,056	34,019
한 국(2위)	19,647	17,523	14,236	12,744	14,149
일 본(3위)	5,595	5,659	5,125	4,685	4,300
인 도(4위)	2,983	3,615	2,973	3,223	3,847

자료: 뉴질랜드 노동부, Immigration New Zealand Statistics.

반면 한국에 진출한 뉴질랜드 원어민 영어교사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정확한 통계는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많은 수의 뉴질랜드 영어교사가 국내 학원과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간에는 교육과 이민을 중심으로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뉴질랜드의 교육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수출(유학생 유치 및 자국민 교사의 해외 근무 등)하려는 뉴질랜드 정책과 한국의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 그리고 간호사, 정비사 등 몇몇 전문분야에 대한 뉴질랜드 시장의 공급 부족과 동 분야의 인력운용이 비교적 여유로운 한국의 상황은 양국간 인적교류의 확대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는 각국이 자국이 지니지 못한 상대국의 비교우위를 활용함으로써 자국 시장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간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인적교류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일례로 한때 뉴질랜드 한국 교민의 수가 4만여 명에 이르렀으나, 2002년 10월 시행된 새로운 뉴질랜드 이민법이 영어시험 통과 조건을 포함하면서 한국인들의 이민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¹⁷⁾ 또한 한국 전문인력의 뉴질랜드 이민을 위해 양국간 상호인증에 대한 협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뉴질랜드 원어민 교사의 한국 진출, 양국간 교환학생 규모 확대 등은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는다.

17) 영어시험 통과조건은 뉴질랜드 정부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중국계(약 15만 명에 달함) 이민을 조절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이는 한국을 포함한 비영어권 국가들의 이민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제5장

결론

앞에서 우리는 뉴질랜드 경제 동향을 비롯하여 대외관계, 한국과의 경제 현황, 그리고 한국의 대뉴질랜드 경제통상 전략 및 협력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6,000달러가 넘는 선진국으로 안정적인 경제·사회구조를 지닌 뉴질랜드는 단단한 농축산업의 수출 기반을 발판으로 향후에도 견실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한국과는 높은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가지고 있어, 비록 현재 교역량은 한국의 주요 수출국에 비해 뒤지기는 하지만 2000년 이후 빠른 교역 증가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뉴질랜드 FTA 추진은 현재 양국간 가장 커다란 통상현안이 되고 있다. 1999년 한·뉴질랜드 FTA 민간공동연구에 합의하면서 뉴질랜드가 칠레에 앞서 한국 최초의 FTA 체결 대상국이 될 수도 있었으나, 양국간 FTA에 대한 뉴질랜드의 적극적인 자세에 비해 한국은 뉴질랜드 농업부문에 대한 민감성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FTA 체결에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뉴질랜드와의 FTA에 대하여 ‘체결 불가’가 아닌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2007년 한국의 대외

경제정책연구원과 뉴질랜드 경제연구원(NZIER: New Zealand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이 참여하는 민간공동연구가 진행되면서 한·뉴질랜드 FTA 추진을 위한 양국의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지정학적 핸디캡과 400만 명의 적은 인구, 그리고 한국의 주요 수출입 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는 한국에 대해 외형적 규모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 농업부문의 적극적인 진출, 인적 교류 확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긴밀한 외교적 협력은 상품교역 외에 한국이 뉴질랜드의 비교우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양국 모두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한·뉴질랜드 FTA를 추진할 경우, 한국은 상품교역 확대뿐만 아니라 투자, 경제·기술 협력, 외교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 등을 고려한 포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협상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문 자료

최지현 · 우병준 외. 2006.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영문 자료

Crafts, Nicholas and Anthony J. Venables. 2001. “Globalization in History: A Geographical Perspective.” NBER Conference Paper.

David Skilling and Danielle Boven. 2006. *The flight of the Kiwi: Going global from the end of the world*. Auckland: The New Zealand Institute.

EIU. 2007. *Country Report & Profile: New Zealand*.

New Zea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04. “Joint Study Report on A FTA Between China and New Zealand.”

Statistics New Zealand. 2006. “New Zealand External Trade Statistics.”

●● 웹사이트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www.moe.go.kr

산업자원부. www.mocie.go.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Global Insight. www.globalinsight.com

New Zealand Department of Labour. www.dol.govt.nz

New Zea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www.mfat.govt.nz

New Zealand Treasury. www.treasury.govt.nz

OECD. www.oecd.org

Reserve Bank of New Zealand. www.rbnz.govt.nz

Statistics New Zealand. www.stats.govt.nz

UN Comtrade Database. comtrade.un.org

Korea-New Zealand Trade Strategy

Hansung Kim and Heeyeon Bae

Located in the South Pacific, New Zealand's population is four million, but its per capita income is more than US\$26,000, and it is well known for its competitiveness in the areas of high technology and agricultural. Due to its geographical constraint of being isolated from the main global trade locations and small population, however, it is not an attractive export market for Korea.

Korea's exports to New Zealand in 2006 added up to \$670 million, an increase of 0.4% from the previous year. Imports, on the other hand, were \$970 million, an 8.6%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New Zealand is Korea's 55th-largest export partner and the 32nd-largest import partner. Korea has suffered a trade deficit with New Zealand since 1990.

Unlike Korea, New Zealand considers Korea to be one of its most important trading partners. Korea is the sixth-largest trading partner to New Zealand following Australia,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England. In 2006, exports to Korea were 3.98% of New Zealand's total exports and 2.92% of its total imports. Therefore, Korea's importance to New Zealand is far greater than New Zealand's importance to Korea.

As mentioned above, in New Zealand's economy, Korea's ability to obtain further economic benefits through expanding trade relations is limited. High income per capita and stable and clear economic and social systems are some of the most attractive factors of the New Zealand economy. Nevertheless, the small population is definitely an impeding factor for expanding this trade relationship. In most cases, economic benefit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defining a trade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however, for the Korea-New Zealand trade relationship, one must consider New Zealand's non-economically outstanding factors, which go beyond the economic realm.

First, Korea can consider for its trade with New Zealand the country's agricultural, forestry, and dairy industries' global competitiveness. New Zealand's globally recognized agricultural industry is based on its natural gifts. Even during the 1980's economic crises, New Zealand actively promoted reforms and reestablished itself as one of the most competitive agricultural economies among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y maintaining the lowest producer subsidy estimate rate. Even without the governmental support in the agricultural industry, New Zealand has been able to obtain the most competitive environment and technology.

Utilizing New Zealand's competitiveness, Korea should extend its partnership and branch out into this specific area. In April 2007, for instance, Korea and New Zealand signed an agricultural cooperation agreement to further cooperate in this area. This is expected upgrade Korea's agricultural environment to a higher level and may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advancement of Korean companies to New Zealand, which will consequently lead to the stabilization of the supply of food resources.

Also, even though New Zealand is a small economy, it has a strong international presence and remains as a middle power in international politics with regards to issues such as aid and development, military, and environmental issues. In the short term, New Zealand's middle power policies clashed with other major powers, but in the long run, New Zealand's moral diplomacy obtained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support, which increased its foreign policies' influence and reputation. Furthermore, New Zealand is stepping up its efforts to establish a middle power alliance amongst the Oceania countries by maintain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m.

Because of its particular circumstances with North Korea, South Korea is unable to follow the middle power alliance. Thus, Korea should maintain a close relationship with New Zealand in order to benefit from New Zealand's international political reputation and influence in order to obtain the same international support for Korea's foreign policy. It would be best to establish its presence as a participant rather than the middle power axis to present its policy to the world.

For the reasons mentioned above, a Korea-New Zealand FTA should consider the enforcement of diplomatic cooperation. New Zealand's trade with Korea is already experiencing some difficulties due to Korea's FTA with Chile and the United States. New Zealand's exports of kiwis and beef are already decreasing significantly. Also, Korea's FTAs with Canada and the EU might further decrease New Zealand's main export items such as lumber and dairy products. Thus, the reassurance of fair competition for New Zealand's products in the Korean marke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FTA will play a positive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Despite having a small economic importance to Korea and being located in the South Pacific with a population of only four million, New Zealand has

an importance beyond its outward factors. High income per capita, competitiveness in the areas of agriculture and biotechnology, and its influence on other countries in the South Pacific region are some of the reasons why Korea must be interested in expanding its relationship with New Zealand. In addition to short-term export and trade increase, Korea's approach to New Zealand must maintain a long-term view to define Korea's needs and invest and cooperate in areas that are beneficial to both countries.

■ 연구보고서

- 07-01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 김홍중·권 율·박복영·정성춘·이성봉 외
- 07-02 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 최낙균·이홍식 외
- 07-03 DDA 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계에 대한 시사점 / 서진교 외
- 07-04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한국의 과제와 대응 / 현혜정·김혁황·김민성·박철형
- 07-05 원화국제화 추진에 따른 장단점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 송원호 외
- 07-06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 채 욱 외
- 07-07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통합모델의 모색과 한국의 전략 / 안형도·박제훈
- 07-08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 양평섭·이장규·박현정·여지나·배승빈·조현준
- 07-09 한·중 금융·물류 허브 경쟁과 한국의 선택: 빈하이 신규 확대 개발에 따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정형근·오용협·원동욱·나승권
- 07-10 한·일 기업의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비교 연구: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 정성춘·이형근
- 07-11 인도 산업발전 전망과 한·인도 산업협력 확대방안 / 이순철·최윤정·정재완·Prabir De
- 07-12 러시아의 WTO 가입과 한국의 무역투자 증진방안 / 이재영·채 욱·한홍렬·신현준

- 07-13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對)개도국 적용 가능성 / 박복영 · 채 욱 · 이제민 · 이 근 · 이상철
- 06-01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 채 욱 · 김세원 · 유재원 외
- 06-02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 시사점 / 김홍중 · 신정완 · 이상호
- 06-03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 권 율 · 김한성 · 박복영 · 황주성 · 홍수연
- 06-04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 서진교 · 송백훈 · 송영관 · 정지원 · 박지현 · 이창수
- 06-05 APEC 무역원활화의 정책과제 및 파급효과 / 김상겸 · 박성훈 · 박인원 · 박순찬
- 06-06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특성별 성과 분석과 정책과제 / 이성봉 · 윤미경 · 현혜정
- 06-07 직접투자의 탈산업화에 대한 영향분석 / 이홍식 · 강성진
- 06-08 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위한 파생금융시장 활성화방안 / 오용협 · 조종화 · 윤덕룡 · 송원호 · 이호진 · 이인형 · 진 익
- 06-09 헤지펀드에 대한 주요국 규제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이호진 · 송원호 · 장국현 · 정삼영
- 06-10 중국의 비즈니스환경 변화와 외자기업의 대응전략 / 박월라 · 박현정 · 이 근 · 은종학
- 06-11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이장규 · 이인구 · 여지나 · 조현준
- 06-12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정성춘 · 김양희 · 이홍배 · 이형근 · 김은지
- 06-13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 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 이재영 · 이철원 · 신현준 · Victor Kalashnikov
- 06-14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 및 현지화 전략 연구 / 이순철 · 정재완 · 최윤정 · 오민아

■ 2007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 06-15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 박복영 · 황주성 · 박철형
- 06-1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 김원호 · 권기수 · 김진오 · 박수완 ·곽재성
- 06-17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생산성 효과분석 / 이홍식 · 신관호 · 이중화 · 김형주
- 07-01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 김홍중 · 권 울 · 박복영 · 정성준 · 이성봉 외
- 07-02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화권 / 양평섭 · 여지나 · 박현정 · 배승빈
- 07-03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일본 / 정성준 · 이형근 · 김은지
- 07-04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ASEAN / 권울 · 정재완 · 이재호
- 07-05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대양주 / 김한성 · 배희연
- 07-06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인도 / 이순철 · 최윤정
- 07-07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동 / 박복영 · 박철형
- 07-08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아프리카 / 박영호 · 허윤선
- 07-09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북미 / 이준규 · 김종혁 · 고희채 · 오민아
- 07-10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남미 / 권기수 · 김진오 · 박수완 · 김원호
- 07-11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EU / 김박수 · 홍유수 · 이철원 · 김균태 · 오테현

■ 지역연구시리즈

- 07-12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 이재영·한종만·성원용·이광우
- 07-13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앙아시아 / 이재영·신현준 편저
- 07-01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 이재영·박상남
- 07-02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정치경제와 소프트웨어 통상전략 / 이 근
- 07-03 주요 선진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 최의현·김완중
- 07-04 최근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 정 훈
- 07-05 India's Economic Cooperation with Partner Countries: Current Status and Potentials / Anjan Roy
- 07-06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방향 / 인남식
- 07-07 아프리카 빈곤대책으로서의 농촌개발: 한국 농촌개발 경험의 전수를 중심으로 / 전승훈·허길행·유철·최미애
- 07-08 EU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 안덕근
- 07-09 중국의 대북미 외교안보정책과 통상전략 / 주재우·김민수
- 07-10 일본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 정 훈
- 07-11 차베스 에너지정책의 형성배경 및 전망 / 임배진
- 07-12 우리나라 기업의 브라질 진출 확대와 교민 활용방안 연구 / 김영철
- 07-13 페루이즘의 변천과 아르헨티나 경제모델의 평가와 전망 / 하상섭
- 07-14 볼리비아의 자원민족주의와 천연가스산업 재편 전개 / 이상현
- 07-15 주요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 한종만

	07-16 주요국의 대중양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 박상남 · 강명구
■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7-01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 정지원 · 박혜리 · 여지나 07-02 한·중 FTA 보건의료 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 / 성한경 · 강준구 · 배승빈 07-03 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점검 / 조미진 · 엄부영 · 박현정
■ 동북아연구시리즈 / CNAEC Research Series	06-01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효과와 대응방안 / 김남두 06-02 Regional Trade in Northeast Asia: Why do Trade Costs Matter? / Prabir De 06-03 Bankruptcy Procedures and the Efficiency of Corporate Debt Restructuring in Korea and Japan / Kenya Fujiwara 06-04 Analysis on the Issues of and Prospects for a China- Korea FTA / Zhang Jianping
■ KIEP-KOTRA 유망국가산업연구	07-01 러시아의 주요 산업 / 신현준 · 이광우 · 김정훈 07-02 멕시코의 주요 산업 / 김진오 · 유성준 07-03 베트남의 주요 산업 / 정재완 · 김동현 · 박근형 07-04 브라질의 주요 산업 / 권기수 · 지윤정 07-05 알제리의 주요 산업 / 박영호 · 박범준 07-06 이집트의 주요 산업 / 박철형 · 권세영

■ 세미나자료모음

07-07 인도의 주요 산업 / 최윤정 · 박민준 · 김정현

- Africa in the World Economy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n eds.
- Global Imbalances and the US Debt Problem:
Should Developing Countries Support the US Dollar?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n eds.
- Emerging Financial Risk in East Asia /
Doo Yong Yang ed.

■ 연구자료

- 07-01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 07-02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 이재영 · 박상남
- 07-03 동북아 대도시권 동태적 경쟁력의 비교연구 /
김원배 · 안형도 · 박세훈 · 정옥주 · 이성수
- 07-04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 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중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 양평섭 · 구은아
- 07-05 Global Imbalances and Developing Countries:
Remedies for a Failing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an eds.
- 07-06 한·뉴질랜드 경험방향과 통상전략 / 김한성 · 배희연
- 07-07 원조모형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 박복영
- 07-08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체계로서 외국인지분제한 제
도의 실효성 검토 / 송영관 · 안준성
- 07-09 한중일 3국의 하이테크제품 교역 특징 및 수출경쟁력
패턴 분석 / 방호경
- 07-10 미국 민주당의 경제정책방향 및 시사점 / 이준규 · 교회채

	07-11 EU의 세계통상전략 / 김세원 07-12 FTA 협상 관련 한국의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 및 대응 / 윤창인 06-01 의료인력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정책방향: 한·미 면허 관리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 김정곤 06-02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열린경제 / 강인수 · 한홍렬 · 김관호 외 06-03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협력경제 / 박성훈 · 박순찬 · 정재완 외 06-04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통상거버넌스 / 최병일 외 06-05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선진경제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 유진수 외 06-06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 / 이성봉 · 김관호 · 이준규 · 현혜정
■ Working Papers	07-01 Determinants of Intra-FDI Inflows in East Asia: Doe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ffect Intra-FDI? / Jung Sik Kim and Yonghyup Oh 07-02 Financial Liberalization, Crises, and Economic Growth / Inkoo Lee and Jonghyup Shin 07-03 The Determinants of Cross-Border M&As: the Role of Institutions and Financial Development in Gravity Model / Hea-Jung Hyun and Hyuk Hwang Kim 07-04 A Roadmap for East Asian Monetary Integration: The Necessary First Step / Kyung Tae Lee and Deok Ryong Yoon 07-05 An Empirical Assessment of a Trade-off Between FDI and Exports / Hongshik Lee and Joon Hyung Lee

- 07-06 Understanding Wage Inequality: Trade, Technology, and Location / Chul Chung and Bonggeun Kim
- 07-07 What Kinds of Countries Have More Free Trade Partner Countries?: Count Regression Analysis / Jung Hur and Backhoon Song
- 07-08 Experimental Economic Approaches on Trade Negotiations / Hankyoung Sung
- 06-01 Investment Stagnation in East Asia and Policy Implications / Hak K. Pyo
- 06-02 Does FDI Mode of Entry Matter for 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 Seong-Bong Lee and Mikyung Yun
- 06-03 Regional Currency Unit in Asia: Property and Perspective / Woosik Moon, Yeongseop Rhee, and Deokryong Yoon

■ 단행본

- 차기정부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EFTA FTA의 주요 내용 / KIEP·외교통상부
- 비교방법론적 분석을 통해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 / 김홍중·손병해 공편저
- 한·미 FTA 바로알기 200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저자 약력

김한성(金翰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現, E-mail: hskim@kiep.go.kr)

저서 및 논문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 방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혁과제」(공저, 2006)

「뉴질랜드 개혁정책 평가와 시사점」(공저, 2006) 외

배희연(裵嬉娟)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現, E-mail: hybae@kiep.go.kr)

저서 및 논문

「중동 GCC와 EU간 FTA 추진배경과 전망」(2005)

「뉴질랜드 개혁정책 평가와 시사점」(공저, 2006) 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반년간)대외경제연구	1만 5천원		1만 2천원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들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영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3460-1179 FAX: 02)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개 인 회 원 ☐		
연구자회원 ☐		

*회원번호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